

SIMA

문학매거진 시마
24호, 2025 가을



정가: 14,000원

SIMA
초대석

천양희 :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의 고독에게

가을 초대시 : 정미주 이사과 장희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의 고독에게

- 천양희 시인을 만나다



© 2025 이영균

2025년 8월 7일 오후 3시, 공감커피정원, 늦여름 햇살 속에서 천양희 시인을 맞이했다. 시인은 올해 등단 60년을 맞이하여 시선집 『너에게 쓴다』를 상재했다. 인터뷰는 유수진 시인이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이영균 사진작가, 오혜정 편집장과 박하은 시인(시마청소년작품상 2회 수상자)도 함께 자리했다. 잔잔한 커피 향이 감도는 공간은 어느새 시와 삶이 교차하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되었다.

유수진 : 선생님께서는 1965년에 등단하시고, 1983년 첫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첫 시집 출간 이후 사십 년이 더 지났는데요. 지금도 시와 산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시를 쓰고 발표하는 힘이 무엇인지요?

천양희 : 지속적으로 쓰고 발표하는 힘은 끊임없이 자각하고 새로워지려는 자세를 가지려 애쓰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갈등과 좌절, 고뇌, 실패 끝에 갖게 되는 정신의 지문이에요. 시인 정신이 ‘공들이기’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시를 쓰기 위해 도전정신을 길러야겠다고 각오하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시 쓰기가 가능했나 봅니다.

시인이 되기 전 시공부를 할 때 나 자신에게 다짐해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는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삶을 만드는 자료니까.”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과 또 다른 하나는 “시를 쓰지 않으면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시를 쓰라.”는 릴케의 준엄한 말이었습니다.

이 두 말을 디딤돌 삼아 시인이 되었어요. 시인이 된 후에는 “나는 시작詩作의 출발부터 시인을 포기했다. 시인이 없어졌을 때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수영 시인의 말입니다. 시를 쓸 때 시를 너무 의식하면 자만해서 오히려 시를 놓치고 말 겁니다. 나는 자기 응시를 배양토로 삼고 있어서 시적 충동이 강렬한 것도 시 쓰기의 힘이 되었지요. 그런저런 생각과 의지가 시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왜 시를 쓰냐고 물으면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유수진 : 근래 저는 ‘글을 쓰는 일이란 매일 수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인가?’ 그런 생각 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양희 선생님의 첫 시집 제목,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이 더 궁금해요. 선생님은 올해 등단 60년이 되셨는데요. 천양희 선생님께서는 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 쓰는 일, 글 쓰는 일이 무엇일까요?

천양희 : 내 생각에 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고 고통을 최소 조건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는 ‘백지의 공포’라 할 수 있어요. 시인 말라르메는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백지의 공포라고 했어요. 여기서 백지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원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는 단순한 생활과 깊은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그러니 시는 사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 옛날 하이데거는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일이 시 쓰는 일이며 죄 없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지요. 하이데거는 시작詩作 행위를 ‘철학의 누이’라고 했어요.

아기가 엄마랑 있을 땐 웃고 엄마가 없으면 울 듯 이 시인은 시가 있으면 웃고 시가 없으면 욕니다. 엄마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듯이 시가 그러합니다.



천양희 시인의 시선집『너에게 쓴다』(2025, 창비)

유수진 : 시의 연륜이나 시를 써온 세월의 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등단 10년입니다. 등단 50년, 60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10년 된 시력詩力과 50년, 60년 된 시력 사이에는 정말 5배, 6배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양희 : 연륜은 나이테를 말합니다. 시의 나이인 시력은 오랜 경험으로 쌓인 숙련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인에게 숙련은 끊임없는 길 찾기가 아닐까요. 나무를 살펴볼까요. 호된 겨울을 견딘 나무가 나이테도 두껍듯이 시 쓰기에도 혹독한 나이테가 쌓이면 ‘시의 질’도 ‘삶의 질’처럼 나아집니다.

‘삶의 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아름다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으며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뜻합니다. ‘시의 질’도 시가 시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시가 될 수 있으며 참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가치 있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시의 나이테를 만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연륜과 세월의 힘입니다. 어

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일은 씨앗이 움트는 일이며 벽을 문으로 내는 것이라고 인도의 선각자 비노바 바베가 말했어요. 시작詩作 10년이 씨앗이라면 시작 50년은 열매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것은 분명 다섯 배 이상의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수진 : 시에 관한 메타시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선생님 삶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말씀부탁드립니다.

천양희 : 내 시에는 시에 대한 시가 많아요. 시는 곧 내 삶이고 목숨에 대한 반성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업 시인으로 60년을 살아온 자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이 탄탄할 때 완성도가 높아져요. 기본 없이는 달성도 없습니다.

나는 내 시가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 한 편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한 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한 편은 우리가 외면한 사람을 위해 바쳐지기를 열망합니다. 이런저런 열망이 이어져서 ‘시 권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사막 속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른 마음을 적셔줄 시라는 오아시스가 아닐까요.

유수진 : 「이처럼 되기까지」 중 ‘잘못 자란 생각 끝에 핀 꽃이 시’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를 구상하거나 쓰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상념에 잠기는 것과 시상을 떠올리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생각은 시가 되고 어떤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남을까요?



© 2025 이영근

천양희 : 나는 산책을 일과로 삼고 있어요. 산책은 생각의 산파 노릇을 해 줍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잘못 자란 생각이 더러 있더라도 그 생각 끝에 시라는 꽃이 됩니다. 그러자면 마음속에 영감의 수신탑을 세워두어야지요. 그래야 생각 끝에 시상의 전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념에 잠긴다고, 시상을 떠올린다고, 다 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의 끝에서 방향을 잡는다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여러 생각이 시를 불러낼 겁니다. 생각이 시상을 만들기도 하고 상상력을 보태기도 합니다. 상념과 시상은 어쩌면 샘쌍둥이 같은 것이에요.

생각에도 방향이 있어 어떤 생각은 깊게 보고 어떤 생각은 멀리 봅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지요. 마치 남자에게는 세계가 심장이고 여자에게는 심장이 세계인 듯 말입니다.

유수진 : 근래에도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시고 작년에는 새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근작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천양희 시인과 유수진 시인

천양희 : 근래의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

시지는 세상 어디를 헤매더라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자예요. 그의 삶이 곧 그의 메시지라는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사람의 나이 육십이면 귀가 순해진다는 이 순입니다. 나는 올해로 등단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나이가 없어선지 내 귀는 아직도 순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는 불혹도, 이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계속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시와 삶에 정답은 없지만, 인문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려고 늘 질문하는 자세를 지닙니다.

시도 사람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 살든 시인으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려 애쓰는 사람, 그러나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근작에서는 소방관, 경비, 경찰 등을 시의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유수진 : 요즘 시를 쓸 때 관심을 두는 감정이 있으

신지요?

천양희 : 사실 시를 쓸 때마다 관심이 달라져요. 요

즘 시를 쓸 때면 ‘시는 낯선 곳에서 온다’는 말과 ‘소금이 온다’는 말이 겹쳐져요. 시 쓰는 일이 소금 오듯 온다면 그보다 더한 환대가 없을 듯해요. 그리고 또 시를 쓸 때마다 새로움이 시의 가치이며 동어반복은 시의 적이라는 말을 새기며 웃깃을 여립니다. 인생이란 가장 슬플 때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거라는 말에 기대기도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정직해지기도 어려워요.

시를 쓸 때 끝까지 관심을 두는 감정은 ‘나는 왜 시인이 되었나?’예요. 시를 어떻게 잘 쓸까, 하는 고민은 결국 ‘시인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유수진 : 현재 문학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

다. 도서관에서 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참가자로부터 ‘AI로 시 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감정 값을 넣고 결과값을 얻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당황했지만 안 그런 척 그런대로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AI와 각종 업무의 밀접한 관계는 이제 현실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환경에서 시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역할이 과거와는 다를까요?

천양희 : 젊은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도 돌아나올 시간이 있어서인지 시 쓰기에도 겁이 없어 보여요. 시인의 체험과 상상력이 잘 어우러져야 살아있는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창작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기댄다니 시를 뭐로 보나 싶어요. 자신의 감정값을 넣고 결과값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고요? 감정에 값을 매기고 결과에도 값을 매기는 일이 시업일까요? 마치 사업 같군요.

< 질문 1 >

-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시를 쓰고 발표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 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연륜이나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의견은요?
(10년 후작이나 50년 소설 사이에는 광활 5백만줄의
연륜과 있다고 생각하나요?)
- 지속적으로 쓰고 발표하는 힘은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혼란에 젖어들 때 저마다 정신의 지운을 찾기며 시인성은은
'승리하기'라는 것을 알고난 뒤, 시는 어렵기 때문에 도전장을
걸어야겠다는 각오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꿈처럼 힘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꿈같았던 무길드에서
꿈같았던 괴작하면서 꿈처럼 힘의 소로워지려는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쓰고 발표하는 힘이 됐나요? 생각해보시나요.
- 저는 시인이 되기 전, 신념을 찾을 때, 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우기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대는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삶을 만드는 자료니까.
한 번자신은 끊임없이 말하는 "시를 쓰기" 암울으면 솔직했던 나의를
깨닫지 못할 때 시를 쓰라"는 일체의 꿈처럼 말이었답니다.
그 꿈을 달성을 삼아 시인의 뒷 위에는 "나는 꿈같은 놀랄부터
시인을 표기 했더니, 시인이 되어졌을 때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기억에 시인의 말을 일기 않았습니다. 시인은 너무 웃으셨다면
그것에 차마해서 오히려 시를 놓치고 말것이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응시를 바탕으로 삶으로 있어서 시락 중동이
강조된 것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천연 '상감'과 의지가
시를 읊었고 좋아주지 않는 것도 꿈을 부추긴 것이고, 그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시를 쓰느냐고 물으면 꿀꿀기위에서;
대답합니다
- 시간 무엇이냐면서 예상밖에 시간 아무도 돌파하지 않는 고도에
마치는 것이고, 고통을 최소화함으로 삶은 거리에 백지의 광고, 가
짜는 아날과 살피는다. 시인 박근혜가 시인으로 남아가는 꿈의
고통을 백지의 광고로 찾는데 백지는 괴로는 쓰지 않는 원고장을 열었습니다.

천양희 시인이 직접 쓴 인터뷰 원고

나는 젊어도 보았고 늙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정직할 때 절창이 나옵니다. 그때가 창작의 절정이라 생각하며 웃깃을 여며왔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대어 어떻게 온전히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이룰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룬다 해도 그것은 절정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이것이 새 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옮리고 흔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공지능을 빌려 시를 쓴다면 그 혼돈과 굴레와 갈등이 또 하나의 가짜 시를 낳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런 환경에서 시인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시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뇌하고 자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입니다. 시인이란 스스로 유배 보내고 황무지를 찾아가는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수진 : 어느 독자로부터 천양희 선생님의 시를 읽으며 경계를 지우는 일과 차이를 구분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구분하고 또 무엇을 구분하지 않으며 살고 싶으신지요?

천양희 : 사람은 그가 종일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데 생활은 단순하게 생각은 깊게 살고 싶습니다. 아침 무지개는 서쪽에 뜨고 저녁 무지개는 동쪽에 뜬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에도 방향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 무엇이든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흑과 백, 좌와 우 같은 이분법으로 구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평론가의 비평이 시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하듯



왼쪽부터 오혜정(편집장), 유수진, 박하은, 이도훈(발행인) 그리고 천양희 시인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자면 이러합니다. 눈에는 눈꺼풀이 있어 눈꺼풀을 내리면 눈이 감기지만 귀에는 귀꺼풀이 없어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고 낡은 것과 오래된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면서 열린 귀처럼 덜 차별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수진 : 선생님은 평생 시를 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시를 쓰면서 삶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달라졌나요?

천양희 : 밑그림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소리를 깊이 듣는 귀명창이 명창을 만들지요. 시를 깊이 읽는 독자의 안목이 명시를 만든다는 걸 알고 난 뒤,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를 쓰면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자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예로 들면 쏘아버린 화살, 가버린 시간, 내뱉은 말, 계

으름의 결과들입니다.

또 시를 쓰면서 울음과 웃음이 같은 음이며 어둠과 빛이 다른 색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를 쓸 때는 반드시 성찰이 따라야 해요. 성찰 뒤에 반성이 따르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시를 쓰면서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여, 고맙다. 삶에 절합니다. 시 쓴 지 60년을 기념하는 시선집『너에게 쓴다』를 내고 나니 더욱 그려합니다.

시인이 건넨 시선집의 힘 있게 눌러쓴 글자들이 시를 향한 시인의 곧은 태도를 닮아 있다. 인터뷰에 함께 한 모두가 시인의 삶과 시를 선물처럼 받은 오후였다. 등단 60년, 여전히 시와 더불어 걷는 시인의 발걸음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기를 바란다.

* 표지 사진은 15년 전 신현림 시인이 찍어준 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것입니다.

#8 Jumper

글 · SIMA 편집부 그림 · 전솔이





그곳에는 소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능소凌霄 / 김미희

담장을 넘어온 능소화는 언니처럼 웃고 있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구나
무심히 영원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 웃는 얼굴에
내 하루가 환해지고

좋은 인연이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발이 없는 건 머물 줄 모르기 때문이고
떠 있는 건 언제든 뒤집히기 마련

창 밖을 내다보며 자주 서성이고
사소한 이유들로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았으며
함께 비를 맞기도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흡착 뿌리로 한 뼘씩 나를 타올랐다
줄기를 키우며,
내 안뜰이 숲이 되는 상상으로 웃음을 흘리고
내 표정을 읽으면서 그 웃음의 뒷면에 무엇을 덧칠했을까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은 조심이 다뤄야 하고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기꺼이 견디는 일

이제, 우거진 정원을 조용히 뒤덮는다
그 익숙한 웃음이 완전히 낯설어질 때까지
더는 길을 걷다가 멈춰 서지 않도록



김미희

〈미주문학〉 등단. 시집『눈물을 수선하다』(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자오선을 지날 때는 몸살을 앓는다』『편운문학상』『윤동주서시해외작가상』『성호문학상』 본상 수상. 〈KTN〉 신문에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 탁소」를 연재 중, 연극배우로도 활동 중이며 〈한솔문화〉 대표이다.



김선하

사진작가, 화가, 칼럼니스트. 개인사진전 2회, 〈달라스 한인신문〉에 사진 칼럼 「사람이 있는 풍경」과 「삶의 파노라마」를 10년째 연재 중, 이민자의 희로애락을 사진과 글로 담는 휴머니스트

집을 떠나는 이유

안락한 소파, 익숙한 잠자리, 백색 소음으로 자리 잡은 창밖의 소란, 매일 아침 우리의 등을 떠미는 애증의 알람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왜 미지의 삶을 향해 떠나는가? 불편함을 동반한 심리적 불확실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는 휴식, 재충전, 새로운 경험이 집을 나서는 주된 이

유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인간의 존재론적 갈망이 깊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상日常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채와 같다. 예측 가능한 내일의 안도감, 정해진 역할과 관계의 안정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벽이 높아지고 두터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일에 익숙해진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여행이다



내면의 아우성이 우리를 집 밖으로 이끄는지도 모른다





내 안의 나를 찾는 여행자이자 순례자

한 툴의 흙먼지도 허락하지 않을 듯 잘 닦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묻지도 않고, 길을 잃지도 않으며, 익숙한 풍경의 습관으로 더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지도 않게 된다.

‘나’라는 존재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제3의 눈으로 평가되는 타인의 기대라는 단단한 갑옷 안에서 조금씩 무디어지고 마모되어 간다.

여행은 바로 이 견고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

다. 낯선 도시에 홀로 섰을 때, 우리는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없는 투명한 존재가 된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꼬리표가 힘을 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백주의 대로에 발가벗겨진 채 무채색 배경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식당에서 메뉴판을 더듬거리며 음식을 주문하고, 방향을 잃은 지도 위에서 이방인의 서툰 몸짓으로 길을 묻는 그 모든 과정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의식과도 같다. 여

행은 그래서, 가장 정직하게 나의 속을 뒤집어 보는 행
위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고 했다. 여행지의 풍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대한 촉매제일지도 모른다. 황량한 사막의 지평선은 우리에게 유한한 삶의 겸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천년 세월의 덕께가 앓은 낡은 성벽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를 응변한다. 시끄러운 시장의 활기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삶의 생명력을 느끼고, 낯선 이가 건네는 작은 미소 하나로 우리는 안도하고 인류 보편의 따스한 온기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여행은 온전하게 혼자인 순간, 자신의 내면을 향한 눈을 뜨게 된다.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가장 깊숙한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 바로 여행이다. 우리는 세상을 보기 위해 떠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세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일상의 마취에서 깨어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람의 냄새와 햇살의 질감을 느끼고, 음식의 맛과 공기의 색깔을 음미하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온전히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여행의 완성인 돌아옴을 통해, 낯섦 속에서 단련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방, 나의 길, 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무미건조한 일상이 아니게 된다. 떠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의 소중함이 보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짹트게 된다. 여행은 우리가 비워두었던 일상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채워 더욱 풍요로운 시간으로 되돌려준다.

우리는 세상을 방랑하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삶’이라는 긴 시간을 여행하는 순례자다. 우리가 문을 열고 길 위로 나서는 이유는 어딘가 존재하는 불상의 몽중원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숨죽여 있던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 가장 ‘나’ 다운 모습으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거나, ‘집이 최고’라는 일상과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 과정은, 그래서 우리의 꽉꽉하고 거칠고 건조했던 일상이 다시 생생한 생명체로 바뀌는 감동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감탄에 다름아닐 것이다.



글 · 사진 조성찬

관광학 박사

전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소년, 백수, 광부

소년은 습관처럼 말했다 내일의 꿈은 빛나는 해적왕 거대한 고래의 뼈를 보았다 무덤이 세계의 벽을 가로막고 있었다 파도가 멎은 바다를 손끝으로 만져보는 것 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꿈은 여기저기 머물 것이다 소년은 작은 방에 누워 늘어나는 팔 다리를 상상한다 아직은 물결을 잇는 긴 팔과 다리가 소중하다 견갑골이 반짝거리는 지느러미로 변해가고 있다 오래된 커튼이 넘실거리고 넓은 매트리스가 출렁인다 웃장의 서랍들이 여닫히는 지진이 일고 목소리를 가득 채운 풍선이 터지고 쿵쾅거리며 서둘러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 있다 소년은 배가 부풀자 몸을 뒤집는다 앙상해도 별일 없이 커지는 뼈들이 있어 잘 지내지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의심일까, 축복일까 요상한 피리 같은 기도 소리를 들었어 플라스틱 양들리에를 밝히는 촛불들이 길게 타고 있었다 소년의 몸이 오색으로 물들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언제 난장이 될까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오롯이 홀로 조악한 악이 되기 위해 소년을 키운 신비의 열매는 아직 발견된 적 없다 장롱 속 깊숙이 감춰둔 검은 봉지들이 하얗게 질려 갈즈음 소년은 잔향이 남은 그림을 통과했다 울지 말아요 눈물이 모두 사라진 바닷가 마을을 지워나가는 검은 얼룩의 행렬들

부서진 다리 위에서

매일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었던
새들은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소용돌이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다

자클린도 천변을 보고 있다

자클린의 다리와 아치형의 다리 사이
흙탕물이 거세게 밀려 나간다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생령들
탈출구가 없는 지하도를 응시한다

보이지 않는 디딤돌과 개울 사이
자클린은 작은 물고기 떼를 본다

자클린은 수영을 배우는 동안
자유형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포옹하던 어깨는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

자클린은 레스토랑에서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연인은 무른 복숭아처럼 얼굴이 일그러진다

디저트는 절인 복숭아 껍질

연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인은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듀엣은 실내악이 되고
군무는 젖은 낙엽처럼 쓰러진다

자클린 당신은
아이스크림을 훌리지 않고 먹는 방법부터 배우고 와

소금이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몸
혀에서 소금이 녹고 있다

자클린은 분탕 끝에
분리되던 지느러미를 보았다
종종 호흡법을 잊고 물을 삼켜도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다

자클린은 푸른 물이 흘러드는 도개교를 상상하며
사람 속에서 있다



정미주

2023년 〈현대시〉 등단

구두를 신겨 주었다

화분에 병아리가 피었다

화초에 물을 줄 때마다 몇 마리씩

병아리가 불어난다

이 식물은 병든 것 같아

옷에서 머리칼을 떼어 내며 애인은 말하고

자리에 누운 호야를 보며

나는

봄이 오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 보자

삽목한 줄기에서 잎이 돋는 토큐를 창가로 옮기고

영양제를 꽂아 준다

새로 난 줄기들은 어느새 몸을 불려

방안을 마구 먹어치운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지난주 옷장을 정리하며 깔깔 웃던 애인이

오늘은

서랍 속에서 걸어 나오며 묻는다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야

해가 바뀔 때마다 토큐엔 실금이 늘어 가고

원룸은 치울수록 불어나는 것들로
몸살을 앓는다

여기 좀 봐,
뭐가 계속 움직여

오늘 아침 나는
물구멍으로 뛰쳐나온 맨발을 보다 말고

애인의 발가락을 닮은 새순을 몇 골라
구두를 신겨 주었다

청동

조각상 앞에서 형은
복근 훈련을 했다

꿈틀거리는 힘줄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아직
여물지 않은 왕_王자가 고민이었다

보디빌딩 대회를 앞두고 형은
쇠질 양을 늘렸다
온 신경이 복근으로 몰려들었다

대회 대신 입대를 고민해야 했을 때
형은 아쉬운 듯
조각상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다

형의 청동시대*가 드디어
내 차지가 되었을 때
나는 조각상에 약을 발라
묵은 때를 벗겨주었다

형이 생각날 땐 복근 훈련을 했다

체질을 바꾸려면 우선
식단부터 짜야 한다

근육질을 위해선
닭 가슴살도 먹어야 하고

여름의 문턱에서 청동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로댕



이사과

2024년 〈현대경제신문〉 신춘문예로 당선
제23회 토지문학제 〈평사리문학〉 대상 수상

회기

지금은 비가 오는데 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바깥은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기분이 들던 곳

찬비가 떨어지는 자리를 바라봅니다 나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는 동안 조금씩 일어나는 모양을 하고 곧 걸어갈 사람처럼

나무가 모인 곳을 처음 숲이라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큰 나무의 그림자가 작은 나무의 그림자를 감싸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숲에 대해 배운 게 있다면 혼자 큰 숲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말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멀어지려는 사람은
흔들어 말려야 한다던데

그건 왜죠 왜 말려야 하는 거죠, 물어보려 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왜죠 그 사람은 왜
숲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였고

그림자들이 잘게 부서져 우산 위로 떨어집니다 비가 멈추는 소리를 듣는 동안

숲에선

나무와 서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고

숲에선

놓고 온 것을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잔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몸을 더 크게 떠는 법

바깥은 너무 멀었습니다 돌아가려면 이곳을 나가야 했는데 숲에선 모
든 곳이

안쪽 같아서

약속하고 온 것들을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약속들을

하나를 떠올리면

하나를 잊는 길 위에서

자주 멈춰 서 버리면

그곳이 숲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떠올리다보면
돌아가는 길은 잊어버리고

자주 멈춰 서 버리면

그곳이 숲인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예언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
밥을 먹겠지

내가 알고 있는 미래란
이런 것

여덟시 뉴스가 끝나면 저녁은 밤이 되는 것처럼

찬밥 담긴 그릇으로 따듯한 국물을 붓는다 국물은 도로 따라내었다가
또 다시
그릇에 담고

이것을 반복하는 걸 토렴이라고 했다

찬 기운과
따듯한 기운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일을

밥알이 바로 떠먹기 알맞게 데워져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래의 온도가 딱 이만큼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다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다
방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실내가 환하게 부풀어 오르고

창을 닫으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이것을 반복해본다

오늘 밤의 미래는
딱 이만큼만 아득하겠다는 듯

티브이에선 일기예보가 흐르고 있었다 기상캐스터가 파란 전국지도
위로 손으로 쓸어내릴 때마다
비가 내리는 화면이

그래도 주말이면 맑게 갈 것이라고 했다

나들이하기에 적당한 기온이
예상된다고

설거지는 미뤄둔 채
부른 배를 쓸어보는 동안

까무룩 잡아 들 것 같았다



장희수

20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서정의 서정⁶



정가 12,5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 현 정 시선집

빨간 우체통 앞에서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對立대립
- 2부 염소와 풀밭
- 3부 자전거 도둑
- 4부 바보사막
- 5부 화창한 날

죽어서도 살아 있는 그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육체는 이미 흙이 되었겠다. 양 평 소나무숲의 솔새 한 마리 되었겠다. 그가 남긴 몇 권의 시집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그가 남긴 불멸의 몸이다. 생전 그는 변방에 홀로 있었고, 죽음과 함께 놀 줄 아는 순정한 시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명했다. 아는 이들은 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시와 더불어 살아왔는지를. 생전 제자도 든든한 우군도 없었지만 그의 시가 금강석 같이 오래 빛날 거라는 것을…

—홍 일 표 시인「나, 그냥 저 뜰에 경배하고 싶어진다」 중에서

이 세 룡 시선집

세계의 砲彈포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빵
- 2부 작은 평화
- 3부 채플린의 마을
- 4부 종이로 만든 세상

우리 젊은 그 시절, 물도 불도 무언지 모르던 그 시절.
활활 탄는 가슴으로 이곳저곳 참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
영화의 한 대목처럼 문득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시인 이세룡
이제 그의 젊음을 다시 읽을 수 있다니.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리운 사람이여, 그리운 시절이여

—윤석산 시인

서정의 서정⁷



정가 13,0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시 詩 오밀석

찰스 부코스키 : 언더그라운드의 계관시인

찰스 부코스키(Charles Bukowski, 1920~1994)처럼 삶과 문학이 밀착되어 있는 작가도 드물다. 독일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부코스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심하게 노출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 군인으로 독일에 파견되었다가 독일 여자인 부인을 만나 독일에서 살다가 부코스키가 세 살 무렵(1923) 가족을 이끌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다. 그는 한 때 잘 나가는 건설업자이기도 했으나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자주 일자리를 잃고 가난에 허덕였다. 그는 자기 내부의 좌절과 불안을 아들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였다. 그는 부코스키를 5~6세일 때부터 옷을 벗긴 채 면도 기용 가죽띠로 거의 매일 두들겨 팤다. 부코스키는 자서 전적 소설인 『호밀빵 햄 샌드위치Ham on Rye』(1982)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호러 스토리horror story”라 부른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야말로 자신의 ‘문학적 스승’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삶의 고통에 대하여 몸서리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에서 부코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완벽한 새디스트였어요. 그가 나를 가죽띠로 때릴 때, 내가 배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타이프를 치는) 방법이었지요. 실컷, 정말이지 실컷 얹어맞으면서 내 안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 욕설들을 의식하게 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가식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관통하고 나서도 뭔가 남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리얼’해지지요. 대여섯 살 때는 한 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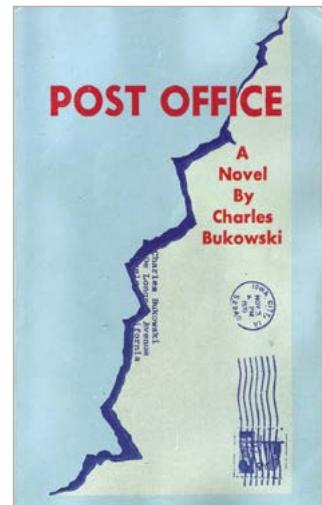
찰스 부코스키
(Charles Bukowski, 1920~1994)

대, 세 대… 열다섯 대, 맞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열 살, 열한 살, 열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점점 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마침내 맞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두려웠는지 아버지는 그때부터 더 이상 나를 때리지 못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에겐 친구들도 없었으며 친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유년 시절 아버지의 살벌한 폭력과 함께 청소년기에 그를 또한 심한 고통에 몰아넣었던 것은 극심한 여드름이었다. 그의 여드름은 청소년기에 많은 아이들에게 생기는 그것과는 경우가 달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뾰루지와 종기가 내 얼굴만이 아니라 등, 목, 가슴까지 온통 뒤덮었으며, 그때만 해도 나를 껌령대며 사춘기 특유의 터프 가이 행세를 막 시작하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고, 모든 면에서 움추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멀리서 쳐다봤다. 그것은 마치 연극의 무대 같았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고, 나는 관객 중의 한 명이었다.” 가뜩이나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부코스키는 마침내 치료를 위해 몇 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고, 병원에서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그의 나의 13세였다. 수년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극단적인 폭력과 심하게 상한 외모야말로 그로 하여금 짐승 같은 현실의 고통을 가능하면 화려한 장식을 버리고 리얼하게 묘사하도록 만들었다(이런 점에서 그는 냉혹한 리얼리스트이다!).

전기론적 접근이 때로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 추론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찰스 부코스키의 경우엔 예외이다. 청소년기 이후에도 그는 다양한 직종을 전전하며 언더그라운드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미국 사회의 밑바닥을 떠돌다가 1969년 그의 나이 49세가 되어서야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당시에 비정규직 우체부였던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미쳐 버리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 작가로 살면서 굶어 죽든가. 나는 결국 굶어 죽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우체국을 떠려치우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는 그의 첫 소설 『우체국』을 탈고한다. 만 73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근 20여 년 동안 그는 서른 권이 넘는 시집을 포함하여 장편 소설, 단편 소설집 등 총 60여 권의 작품집을 남길 정도로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의 입에 항상 물려 있었던 담배와 그의 손에 항상 들려 있었던 술병들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빈한하였으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가 얼마나 심하게 타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술과 담배와 여자에 탐닉하면서 끔찍한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끊임없이 보상받고자 했으며, 마초 스타일의 강한 남성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오래도록 거세당한 자신의 팔루스phallus를 대리보충supplement하고자 하였다.



찰스 부코스키의 『우체국』

사납고 미친
알콜 중독 여자와
내가 호텔에 살고 있을 때
그녀는 내게
에즈라 파운드의 장편 시집 『캔토스』를 집어 던졌다
얻어맞진 않았지만
여자들은 내게 늘 그렇게 대했다.

내가 조명기구
공장에서
포장 담당으로
일하던 시절
한번은 요란한
술자리에서 내가
여자에게 말했다.
“이봐, 이것 좀 읽어봐!”
(올더스 혁슬리의 소설
『연애 대위법』을 가리키면서)

“아, 네 엉덩이에나
쑤셔 박어!” 그녀가
내게 비명을 질렀다.

—「그 느낌」The Feel of It」 부분
(이하 모든 인용 시는 오민석 역)

이 작품은 그가 속해 있었던 공간과 그에 대한 그의 문화적 대응 방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술과 욕설과 비명이 난무하는 삶의 공간에서 늘 불안한 삶(“호텔에 살고 있을 때”)을 보낸다. 그가 만나는 여자들은 교양이나 지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 또한 여성들 앞에서 마초성을 앞세우며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것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 강하고 지적인 남성이 아니라 무능한 술주정뱅이에 불과하다. 오로지 욕설과 돈과 섹스만이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 주는 밑바닥 인생에서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에즈라 파운드나 올더스 혁슬리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실제로 그는 세상의 바닥을 거칠게 살아가면서도 동네 도서관의 책들을 이 잡듯이 찾아 읽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함순, 헤밍웨이, 헨리 밀러,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

젊었을 때 나는 술집과 도서관으로
똑같이 양분된 삶을 살았는데 다른
일상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수수께
끼이다. 나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책이나 술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별로 생각나지 않았다.

—바보들은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법이니까.

술집에서는, 나는 스스로 터프하다고 생각했고
물건들을 때려 부수었으며
다른 놈들과 싸움질하거나 했다.

도서관에선 문제가 달랐다. 나는 조용했으며
이 방 저 방으로 돌아다니며 책을 읽었다.
…(중략)…

내 혼란스러운 대가리 어딘가에 숨어있던
욕구를 채워준 것은
철학자들이었다.
…(중략)…

그 늙은 개들은 얼마나 위대한 친구들이었나,
그들 덕분에 나는 면도날 같은 낫들과 쥐들로 꽉
찬 밤들,
그리고 지옥의 경매사들처럼 흥정하는 여자들을
지나올 수 있었다.

나의 형제들, 철학자들은 나에게
거리나 세상 어디의 어떤 누구와도 다르게 말했
고

막대한 공허감을 채워 주었다.
그런 좋은 남자들, 아 그런 좋은
남자들!

그렇지, 도서관은 그렇게 내게 도움이 되었어, 그
러나 나의
또 다른 사원은 술집들이었어, 그것은 다른 문제
였지, 더 단순했으며
언어도 삶의 방식도 달랐지…

도서관의 낫들과, 술집의 밤들,
밤의 세계는 늘 이런 식이었어.

…(중략)…

“야, 뭐 맘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래, 네가 맘에 안 듣다.”

“한판 뜨고 싶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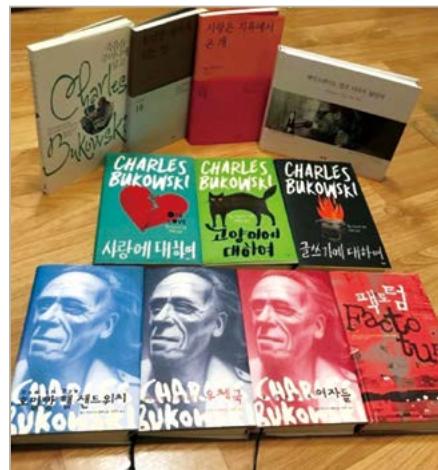
“당연하지.”

우리는 술 마시기를 끝내고, 일어나, 술집 뒤
골목으로 나가,
돌아서 서로 마주 본다.

—「면도날 같은 낫과 쥐들로 꽉 찬 밤들

Days Like Razors, Nights Full of Rats」 부분

그는 도서관과 술집이라는 두 개의 사원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낮의 사원이고 술집은 밤의 사원이다. 낮의 사원에서 그는 “막대한 공허감을 채워”주는 철학자들을 만나고, 밤의 사원에서 그는 술과 “홍정을 하는 여자들”과 다른 남성들과의 폭력적 관계를 만난다. 각각의 사원에서 그는 무엇을 숭배할까. 그는 양쪽에 자신의 에너지를 고르게 분배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파라다이스로 만든다. 술집이 상징하는 세계야말로 불가피한 현실, 떠날 수 없는 세계이다. 그것은 에너지의 분배 이전에 선형적으로 주어진 세계이며 그 세계에서 그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속한 현실이 싸구려 섹스와 술과 폭력으로 점철된 공간이었음을 인정한다. 그 것은 그 자체 엄청난 결핍이고 공허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철학이라는, 다른 사유의 프레임들을 필요로 하는 세계이다. 그는 떠날 수 없는 비루한 현실 안에서 그것을 관조하는 다른 세계를 동원하여 이 둘을 합쳐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그의 글쓰기 동력은 이렇게 술집과 도서관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원에서 비롯된다.



국내에 소개된 찰스 부코스키의 책,
https://blog.naver.com/miles_coltrane/221219015651

한편, 이 두 개의 고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여성관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개 하룻밤 유흥을 위한 창녀들(“홍정하는 여자들”)이거나 반지성적 알코올중독자들이다. 여성 혐오적 표현을 자주 동반하는 그의 텍스트들은 논자들로부터 종종 ‘성차별주의sexism’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 가령 부코스키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를 출판한 휴즈 폭스Huge Fox는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는 분명히 센 남자 Man 행세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시에서 보여주는 ‘포즈’이기도 하다.”

한 개의 알전구 외엔

아무것도 없고,
56명의 사람이
간이침대에
다닥다닥 붙어
동시에 코를 골아대는
싸구려 여인숙에 살아보기 전엔
당신은 살아본 게 아니야.

…(중략)…

오래 빨지 않아

뻣뻣한 양말

오줌과

똥에 찌든 속옷

그 위를

천천히

감도는 공기

…(중략)…

최악의 것은

희망의 총체적 부재,

그것이 그들을 수의처럼

완전히 덮고 있지.

—「싸구려 여인숙Flophouse」부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캐딜락 자동차가 되었든, 창조가 되었든, 불멸성이 되었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애쓰지 ‘말 것’. 기다려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좀 더 기다려라. 그것은 마치 벽 위에 높이 매달린 벌레 같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채고, 죽여라. 그렇지 않고 그것의 외양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애완동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예술 창조에 있어서 영감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유달리 쓰고 매웠던 삶에 지친 그의 마지막 푸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는 이제 영원히 잠들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독자들이 그의 글을 읽느라 점점 더 애쓰고 있다. 한국에도 그의 시집과 소설들이 번역되어 있다.

1986년 <타임>지는 그를 “미국 하류 계층의 삶을 다룬 계관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전 생애를 통해 그가 경험했던 현실이 바로 그런 세계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 작품에서도 그는 극빈의 공간에서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기 전엔 삶에 대하여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는 앞에서 술집으로 상징되는 결핍과 공허의 현실이 왜 그의 ‘사원’ 중의 하나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대목이다. 그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날것으로서의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직접적 경험의 강렬함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리얼리티’라는 사실, 따라서 그 것에 대하여 떠들지 않을 수 없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1994년 3월, 그는 만 73세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소설 『펄프』를 완성한 직후였다. 그의 묘비명은 “애쓰지 마라Don’t Try”이다. 이 두 단어는 문학과 삶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한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애쓰지 마라.



오민석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현재 단국대학교 영미인문학과 명예교수. 1990년 월간 『한길문학』 시 부문 신인상,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 시집 『굿모닝, 에브리원』 외, 문학평론집 『이 횡塘한 날의 글쓰기』 외, 대중문화 연구서 『나는 딴따라다: 송해 평전』, 『밥 딜런, 그의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번역서 바스코 포파 시집 『절름발이 늑대에게 경의를』, 『오 헨리 단편선』 외 다수. 『단국문학상』, 『부석 평론상』, 『시와경계 문학상』, 『시작문학상』, 『편문학상』 등 수상.

유성호의 문학톡톡



서정주의 다섯 번째 시집 『동천』은 1968년 11월 30일 민중서관에서 출간되었다. 시집에는 「마흔다섯」이라는 작품도 실려 있는 만큼, 미당으로서는 자신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 일종의 중간결산 격으로 이 시집을 준비했던 것 같다. 미당未堂은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61년 제4시집 『신라초』를 낸 뒤 여태까지 발표해 온 것 중 오십 편을 골라 모아 『동천』이란 이름을 붙여보았다. 그중 「마른 여울목」과 「무의 의미」 두 편은 신구문화사 판 『한국시인 전집』 속의 내 선집에 이미 수록된 것이나 내 개인시집 속엔 아직 끼이지 않았던 것이라 읊겨 여기 넣도록 했다.

『신라초』에서 시도하던 것들이 어느 만큼의 진경을 얻은 것인지, 하여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은 다해온 셈이다. 특히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에 크게 힘입었음을 여기 고백하여 대성 석가모니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순간의 도취, 영원의 기억

-서정주의 「내 영원은」



서정주 시인(호는 미당(未堂), 1915.5.18.~2000.12.24.)

『신라초』 이후 7년 만에 내는 시집에는 모두 50편이 모아져 있다. “『신라초』에서 시도하던 것들이 어느 만큼의 진경을 얻은 것인지” 하는 말에는 아마도 신라 정신과 영원성의 시학을 다시 한번 본격화했다는 회고와 자부심이 섞여 있는 듯하다. 또한 우리는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을 통해 더욱 심원해진 미당 어법을 이 시집에서 만나게 된다. 거기 실린 시 한 편을 읽는다.

내 영원은
물 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이로라.

가다 가단
후미진 굴형이 있어,
소학교 때 내 여선생님의
키만큼한 굴형이 있어,
이쁜 여선생님의 키만큼한 굴형이 있어,

내려가선 혼자 호젓이 앉아
이마에 솟은 땀도 들이는
물 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이로라
내 영원은.

— 서정주, 「내 영원은」 전문
(『동천』, 1968)

짧고도 단정한 시상이 펼쳐져 있는 위의 작품은, 미당 서정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었던 요시무라 아야꼬吉村綾子 선생을 “물 빛/ 라일락의/ 빛과 향기”로 느끼면서, 일부러 구렁에 들어가 호젓하게 요시무라 선생을 그린 경험을 담고 있는 체험 시편이다. 시인의 술회에 따르면 요시무라 선생은 그로부터 1년 만에 일본으로 떠났고, 소년 미당은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 아픔의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하는 마음이 불혹을 넘어 발화되고 있는 이 시편은, 가령 “내 영원”이야말로 그 빛깔과 향기처럼 순간으로 각인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구렁에서 “이



서정주 시집『동천』(민중서관, 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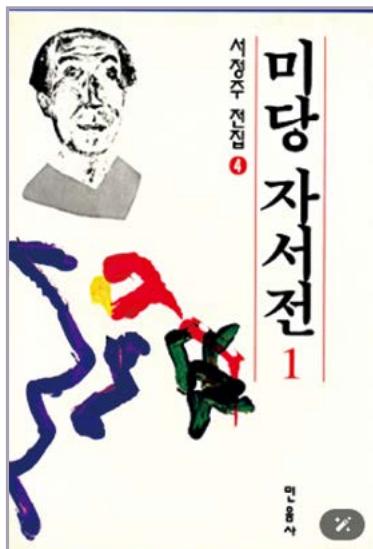
쁜 여선생님”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거기 혼자 호젓하게 앉아 “이마에 솟은 땀”을 안아들이는 “물 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을 새삼 떠올립으로써 바로 그 ‘순간’의 출렁이던 감각이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 시편의 그러한 후경後景으로 둘러져 있다.

나는 그가 부임하여 한 달인가 두 달 지난 뒤
의 어느 날 오후, 학교서 나오는 걸음으로 책보
를 옆에 낀 채, 영전리 콧등이란 데에 있던 빈 제
각으로 한 반 애들과 함께 꽃을 꺾으러 갔었는
데, 웬일인지 그 앞마당에 있던 여러 꽃들 중에
서 물빛 라일락을 한 가지 꺾어 들었다. (...) 그런
데 이 쑥하고 그 비슷한 것들밖에는 없었던 구렁
의 그늘 속에서 내가 맡고 보고 있던 그 물빛 라
일락의 향기와 빛과 아울러서 내가 내 속에 지니
고 있던 것은 이상하게도 그 요시무라 선생의 모
양이었다. 그 구렁의 높이는 꼭 요시무라 선생의

키만큼 내게는 흡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을 오래 떠나기 싫게 싱그럽고 좋았었다. — 그 래 그 뒤 나는 요시무라 선생을 생각할 땐 그 꽃 빛과 그 냄새를 거기 섞는다.

(『미당 자서전 1』, 민음사, 1994, 189면.)

이처럼 미당 시학의 ‘영원성’은 “인제는 아주 영원뿐 인 하늘”(『무제』)에서처럼 천상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가 장 깊은 기억으로 안아드리는 ‘순간’을 질료로 삼은 것인 기도 하다. 위의 시편은 그러한 순정하고 호젓한 ‘순간’의 도취가 ‘영원’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한 미당에게 세상의 뜻 사물들은 “햇볕에 새 붉은 꽃 피어 나지만/ 이것은 그저 한낱 당신 눈의 그늘일 뿐”(『피는 꽃』)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로서는 모든 존재자들을 향하여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고 노래할 수 있



『미당 자서전 1』(민음사, 1994.12.01.)

었을 것이다. 미당이 직접 이야기한 ‘영원성’에 대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영원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골라 써야 한다. 그러니 그러면 한 시대성의 한계 안에서 소멸되고 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거나 거듭거듭 문제 가 되는 그런 내용만을 골라 써야 한다.

(『미당산문』, 민음사, 1993. 118~119면.)

한국 현대시의 주류이기도 한 순수서정 계열의 모토 이자 지향인 ‘영원성’의 시학이 여기 잘 토로되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일 터이다. 시대성의 한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항구적으로 매력과 문제점을 동시에 주는 내용 말이다. 결국 서정주의 영원성이 구체적 경험의 순간 속에서 발원하여 형이상 학적 질서에 대한 갈망으로까지 번져간 건, 우리 근대시사의 한 진경進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유성호



1964년 경기 여주 출생.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지은 책으로 『서정의 건축술』『단정한 기억』『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이 있음. 〈대산문학상〉 등 수상

| 나의 파노라마 뷰

• 정주연

할머니의 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오래 사진을 찍지 않아 먼지가 묻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탁하고 희뿌였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실명이었다고,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느냐 따져도 할머니는 노트북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일 바로 수술을 앞둔 사람 같지 않았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내가 찍은 사진을 넘겨보며 입을 열었다.

“눈 안 보이는 게 뭐 대수겠냐.”

한숨을 쉬고 거실 진열대에 놓인 여러 액자를 쳐다봤다. 할아버지와 다정히 손을 맞잡은 사진뿐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에만 있고 싶어 했다. 자주 나가보던 뒷산도, 시장 안 다방도 일절 찾지 않았다. 외로움을 타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 평계나 대며 자주 찾아뵙지 못한 지난날을 떠올리자 마음이 착잡해졌다. 더 사진을 찍어도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허구한 날 렌즈 속만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사진은 더 없느냐, 은석아. 손을 움직여 노트북 속 옛날 파일을 뒤적거렸다. 요즘 찍은 사진은 이게 끝이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쩐지, 블로그에 뭐가 안 올라오더라.”

사진관 일을 그만두고 매일 집 안에 앉아 카메라만 만지작거린 지 오래였지만, 요즘 사진관이 바빴다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바라보던 카메라 안 풍경이 두려워졌다. 세상을 잘 간직해 낼 자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렌즈만을 오래 쳐다봤다. 할머니는 내 사진 블로그의 유일한 애독자였다. 댓글을 달진 않아도 누구보다 빨리 게시물에 하트를 눌러주는 사람, 모든 사진을 오래오래 바라봐주는 사람이었다. 여러 파일을 열어보다 오래전 찍은 노을 진 뒷산에 손이 멈쳤다. 한참 파노라마 사진에 빠졌을 적 찍은 사진이었다. 어떻게 찍어야 인기를 얻을까, 생계가 유지될까 고민하는 지금과는 달랐다. 노을 너머로 봇ちは 하듯 펼쳐진 구름을 담아내던 시선. 까만 렌즈에 갇혀버린 지금과 달리 그 너머만을 바라보던 때였다. 할머니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이건 어떻게 찍은 거냐고 물었다. 다른 사진과 달리 무척 넓게 펼쳐져 있다고.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분활해 찍은 걸 이어 붙여서 한눈에 보이도록 만든 거죠.”

탁한 색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는 것만 같았다. 후레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순간이 떠올랐다. 깨끗한 마찰음 소리와 함께 조각난 여러 풍경이. 내 사진을 보면 환히 웃는 할머니의 눈을 마주하자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라도 찍어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진은 참, 인생이랑 많이 닮았구나. 할머니는 갑자기 내 팔을 짚고 일어났다. 오랜만에 사진 속 뒷산으로 가보고 싶다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다 기다리라고 말한 후 카메라를 챙겼다.

노을에 적셔진 뒷산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다. 가을 낙엽, 마른 나뭇가지 곳곳에 태양 조각이 박혀 빛났다. 우리는 익숙한 언덕 위로 올라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봤다. 할머니는 하늘에 찬찬히 새겨지는 노을의 물결을 바라봤다.

“그 파노람인지 뭔지가 인생이랑 참 비슷해.”
“파노라마요.”

정정하는 말에 할머니는 내 머리를 거칠게 쓸었다.

“죽고 되돌아보면, 지금 하늘처럼 이어져 있겠지.”

슬펐던 일도, 행복했던 시절도 다 결국엔 그 사진처럼 말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늦기 전에 병원에 가서 참 다행이야. 할머니의 눈동자가 점점 햇볕색이 되어갔다. 앞으로 더 많은 걸 이 눈으로 담을 거라는 말에 카메라 렌즈 뚜껑을 열었다. 무서워 쳐다만 보던 렌즈 안으로 오랜만에 눈을 갖다 댔다. 숨을 멈추고 태양이 흩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도려낸다. 예전에 비해 아쉬운 색감이었지만,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검은 렌즈를 바라보던 정지된 프레임마저 결국 하나의 파노라마가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잠시 멈췄던 파노라마 사진을 계속해서 연결하기 위해.

손바닥 소설 II

| 내 감자에게

• 황효준

언젠가는 국화를 잔뜩 따다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듯 좋을 것 같다. 내 마음을 한 아름 가득히 가져간 너는 내 전부를 가져갔다. 네가 가져간 그 한 아름이 내 전부였던 것 같다.

나는 너의 그림 중에서 국화가 특히 좋았다. 정말하게 놓아진 국화가 난 너무 좋았다. 예전에는 흰 국화를 검은 먹으로 그린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언제나 나는 너의 국화 그림을 좋아했다.

넌 한국화를 그리는데 좋아하는 작가로는 모네를 꼽았다. 네 말을 듣고 찾아본 모네의 그림들은 온통 예쁘긴 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너는 사람을 살린 그림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한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아 자살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였다. 너는 자기가 그런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마음 깊은 곳까지 선하고 귀여운 사람.

너는 진짜 귀엽다. 볼이 통통하고 얼굴이 동그라서 무얼 하든지 간에 귀엽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아이 같고 사랑스럽다. 작은 별로 뒤뚱뒤뚱 길을 걷는 것이, 수줍은 듯이 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는 것이, 볼을 움직이며 과자를 오물오물 먹는 것이, 나를 발견하고 방긋 미소 짓는 너의 모습이 너무 많이 사랑스럽다. 너는 귀여운 구석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귀여운 점을 나열하기에 여백이 부족할 정도로 귀여운 사람이다. 네가 보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지금 네가 나를 보려고 왔으면 좋겠다.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빈틈없이 나를 안아서 나를 가지려는 듯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강아지, 강아지가 생각난다. 어느 날은 네가 결혼하면 사모예드를 키울 거라고 선언했었다.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당당하고 귀엽게 말했다. 뿌듯한 표정을 짓고 핸드폰으로 봤다고도 말했다. 네가 사진을 보여줄 때도 내 머릿속에는 사모예드라는 흰 강아지보다 네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난 네 핸드폰이 아니라 너의 말랑한 볼을 보고 있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분명 일상인데도 흔한 주말인데도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나 행복했다.

자꾸 시야가 번쩍거려서 네 생각을 하기에 너무 불편했다. 몸이 너무 차갑다. 네 손이라도 잡고 싶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자고 있거나 어딘가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너의 첫 애칭은 감자다. 감자란 애칭이 붙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는 아니니까 동그랗고 귀여워서 붙은 걸로 했다. 두 번째는 복어다. 둥그렇게 부푼 복어를 보고 네가 떠올라서 두 번째 애칭은 복어가 되었다. 내가 복어는 요리 못하니까 감자 요리를 해주려 했는데 막상 네가 감자를 별로 안 좋아했다. 도시락을 쌀 기회도 별로 없었다. 감자 볶음밥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고 감자튀김과 감자로 케이크를 구워서 디저트 같이 먹을 계획이었다. 감자 케이크는 나름 준비했는데 시험삼아 준비해서 먹었을 때 그냥 감자 삶은 거나 다름없는 맛이어서 크게 실망했다. 온갖 재료가 들어갔는데 삶은 감자라니.

눈으로 덮여 하얗게 된 겨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너에게 입혀보고 싶었다.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문제는 그 생각을 한 게 학생 때여서 돈이 없었다. 그 뒤로 적당한 겨울이 없어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상상을 몇 번이고 했는데 너는 진짜 귀여웠다. 생각한 김에 흰 텁모자를 사야겠다.

눈앞이 자꾸 번쩍거린다. 분명 시끄러운데,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간호사가 무얼 들고 뛰어오는데 근데

조용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트럭에 치였거나 총에 맞았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파편에 깔렸다던가 그런 거 같다. 아보고 싶다.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다.

몸이 잘 안 움직인다. 자세가 불편한데. 목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시야에 피가 차오른다. 이제 눈을 감아야겠다. 눈을 뜨고 있어 봐야 보이지 않을 거 같다.

너에겐 말하지 않고 몰래 세무사 시험을 봤다. 분명 붙었을 거다. 상당히 괜찮은 직업 아닌가? 너와 결혼해도 고생시키는 일 없을 만한 직업이잖아. 이제 조금만 기다렸다가 결혼하면 되는데. 너 놀라게 할 생각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반응은 봐야지. 돈 많이 벌어서, 너 고생 안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걸 알면 넌 자기 때문이냐고 경악할 거야. 근데 뭐 이미 붙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꾸 웃음이 새어 나온다. 아보고 싶다.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넌 예쁜 사람이야. 너는 아니라고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하겠지만 네가 너무 예쁘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거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밝아서 사람들이랑 잘 친해져서 친구도 많고 잘 어울리고 하는 거 보면 성격도 인성도 참 좋아. 그리고 아프지 마. 초코 송이랑 컵떡볶이 좀 줄이고 채소 좀 먹어. 제발 아프지 마. 내가 속상하단 말이야. 많이 보고 싶고 아주 많이 사랑해. 넌 내 전부야. 내 모든 거야.

민정아 나 아직 의식이 있는데 전기 충격하는 그거 받진 않겠지? 그냥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나 자꾸 시야가 깜빡깜빡거려.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래. 나 너랑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 하나하나 같이 다 해줘야 해.

보고 싶어 민정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프지 말고 몸조심하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살 뺀다고 굽고 다니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어. 볼살 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 지금 좀 졸려. 근데 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 처음은 ‘내 감자에게’ 일 거고 끝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많이 사랑해’ 일 거야. 민정아 아주 많이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시간이 조금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나는 심히 자유로워졌다. 하늘을 날 수도 초원을 걸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시작을 ‘내 감자에게’로 쓰려했는데 생각해 보니 감자나 복어보단 네 이름이 나을 것 같았다. 근데 민정이란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다. 너라는 사람은 민정이란 이름에, 복어나 감자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네가 내 옆에 앉고 나를 보며 웃었다. 나도 너를 보고 따라 웃었다. 너는 아주 많이 사랑스러웠다. 나는 아주 많이 행복했다. “아주 많이 사랑해” 그 말은 내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온 작은 외침이었다.



황효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1학년

칼로 세간 시 박해암

설득

대장장이는 낫도 좋고
칼도 좋지만 오늘은 호미가 되자고
땅땅 쇠를 설득 중이었는데요
세상에서 뼈딱 하다못해 딱딱한 것이 쇠 아니겠습니까.
그런 쇠를 물령하게 달구고 또 식히길 반복하면서
망치로 수백 번 어르는 동안
쇳덩이 속에 있던 불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득, 오늘 중으로 설득해야 할
얼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치를 생각하다가 그중 최고의 가치적 능력이 ‘설득’이 아닐까 가늠해 본다. 설득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당대의 결정들 중에는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설득들이 있었다. 단 한마디 또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인 그런 설득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설득은 나의 논리나 감정이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진짜 설득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위대한 논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일일 것이다.

협상장에서 또는 어느 건물의 옥상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최선이라는 난간에 앉아 다른 쪽 난간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 모두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쪽의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고 간절하게 설득 중인 풍경은 난간 하나를 설득하는 일과 맞먹는 일이다. 그뿐이겠는가.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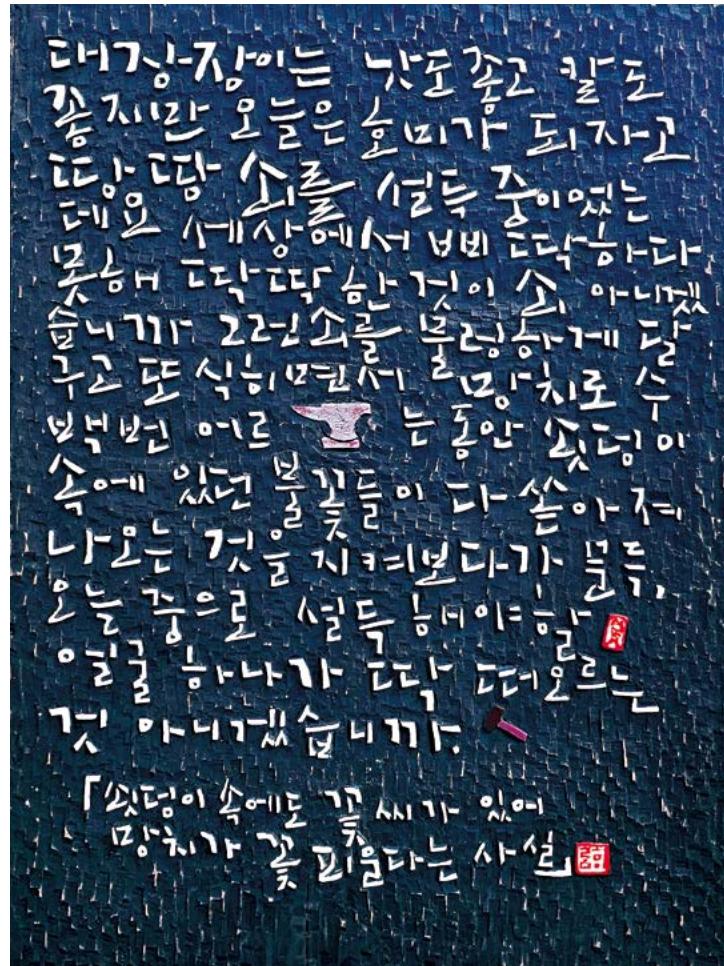
부가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도 어찌 보면 설득의 종류다. 그래서 설득은 참 지난한 일이다.

설득에 관한 몇 가지 일들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 Carl Sagan이 나사를 설득해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그 먼지만 한 크기의 지구 사진 “창백한 푸른 점”을 찍은 일이다. 사실 처음에 나사는 이 촬영계획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다고 한다. 우주 저편을 향해 날아가고 있던 보이저 1호를 돌려세워 지구 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었다는 것이다. 사람처럼 누군가 부르는 쪽으로 돌아본 얼굴을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었던 일을 끈질긴 설득 끝에 찍은 지구를 바라볼 때마다 설득한 쪽이나 설득당한 쪽이나 위대하다는 말 밖엔 할 말이 없다. 그 사진 한 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한 세상을 잠시나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위징아는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라 했지만 인간은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존재라 해도 손색이 없다.

인간의 설득보다는 하위개념이겠지만 식물들도 스트레스물질인 피톤치드를 분비하면서 상대의 접근을 막아 나름의 반경 복지를 이룬다거나 또 열매들이 대체적으로 둑근 이유도 어쩌면 스스로의 슬하를 떠날 때 유리한 모양, 구르는 일에 적합한 모양이 아닐까. 이런 식물들의 설득 방식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은 잘 설득당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귀가 얇다’라고 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조차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고집쟁이’라고도 한다. 둘 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엇비슷하게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자에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설득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유럽의 대학들에서 설득은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숙달해야 하는 기본 교



양과목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시대부터 사상가들은 설득에 관한 논문을 쓰는 데 몰두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설득 아닌 것이 없다. 아침과 저녁이 오는 일도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도는 지구의 설득이 아닐까. 또 지구에서 살다 갔거나 살고 있는 사상가들과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산가들을 이루고 있는 총체적 요소들을 하나씩 빼내다 보면 결국엔 설득당한 일과 설득한 일들만 남을 것 같다.

한참 동안 지켜본 대장간 풍경은 여전히 무더운 불의 온도였지만 바짝 달군 쇠에 찬물의 온도를 집어넣는 일은 냉온의 양극적인 설득기술의 전형이었다. 하나의 쇳덩이가 모양을 갖춰가는 동안 망치 소리 중 어떤 소리를

쇳덩이에 넣고 또 어떤 소리를 쇳덩이에서 빼내는지 알 것 같았다. 크게 넣고 작게 빼내는가 하면 달래듯 살살 넣고 우악스럽게 빼내곤 했다. 그때 문득 설득해야 할 얼굴 하나가 딱 떠올랐다.



박해람

1998년 월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낡은 침대의 배후가 되어가는 사내』 『백 리를 기다리는 말』
『가을밤 위원회』



시인의 별을 품은 숲

제4회 <김희준청소년문학상> 시상식과 추모식 현장

경남 통영의 한여름, 매미 소리와 바닷바람이 교차하는 통영RCE 세자트라숲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7월 24일, 이곳에서는 제4회 <김희준청소년문학상> 시상식과 고(故) 김희준 시인 5주기 추모식이 함께 열렸다. 숲길 초입, 시인의 시 「태몽집」이 새겨진 시비 앞으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든 밭걸음이 잔잔하게 이어졌다.

별이 된 청춘

김희준 시인은 1994년 통영에서 태어나, 신선한 언어와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주목받았던 젊은 시인이었다. 그러나 2020년, 스물여섯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유고 시집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이 출간되었고, 다음해에는 산문집 『행성표류기』가 출간되고, 통영RCE 세자트라숲에 시인의 대표작 「태몽집」을 새긴 시비가 세워졌다.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들은 그의 부재를 견디기 위해 시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 <김희준청소년문학상>을 만들었다. 2022년부터 매해 여름, 추모식과 함께 열리며 청소년들에게 시를 쓰는 용기와 무대를 선물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창작의 문을 열다”

<김희준청소년문학상>의 설립 취지는 분명하다.



故 김희준 시인(1994.9.10.~2020.07.24)

“한국 현대시를 신선한 감각으로 접근한 김희준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이 창작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문학상은 고등학생과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시 3편을 응모받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문학적 여권과도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에는 총 753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4차 심사를 거쳐 7인의 작품, 「매스플라워」 외 2편, 「동산의 메아리」 외 2편, 「원터 이즈 커밍」 외 2편, 「봄밤의 무화과」 외 2편, 「일그러진 교실」 외 2편, 「눈썹 끝에 맷 힌」 외 2편, 「펑킹가위」 외 2편이 최종심에 올랐다. 그중 정혜선 양의 「원터 이즈 커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4회 <김희준청소년문학상>
수상자 정혜선 양



오른쪽에 액자는 김가림 학생이
故 김희준 시인을 생각하며 직접 만든 케이크이다



산문집『행성표류기』에서
한 구절을 낭독하고 있는 양진기 시인

시와 추모가 만나는 자리

행사는 <올리브행성의희준과아이들>의 주체로 진행되었다. 시인의 제자들이 만든 모임인 <올리브행성의희준과아이들>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시인의 목소리를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였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작 낭독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시인의 유고 산문집『행성표류기』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을 한 구절씩 나누었다. 누군가는 거기서 위로를, 또 다른 이는 도전을 발견했다.

“이 상이 단발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시인 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재능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자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 주최 측 관계자

모든 이들이 시인의 영상을 바라보며 한 송이 장미를 헌화하는 순간, 숲속은 잠시 고요해졌다.

여름마다 피어나는 시의 숲

<김희준청소년문학상>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통영의 여름 풍경 속에 자연스레 스며든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매년 이날만큼은 시인의 시비가 있는 세자트라숲은 시와 청춘이 만나고, 별빛과 바람이 교차하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이 작은 숲에서 반짝이고 있는 시인의 이름,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의 시 속에서 반짝이며 살아남을 것이다.

김희준 시인의 따뜻한 가르침과 문학정신은 그를 기억하는 제자들과 지역 사회를 통해 계속해서 빛나고 있다. 매해 여름, 세자트라숲은 청소년들의 시와 애틋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정택근의 이 세상 홍련

여덟 번째 이야기

남개연

수련과 *Nuphar pumila* var. *oze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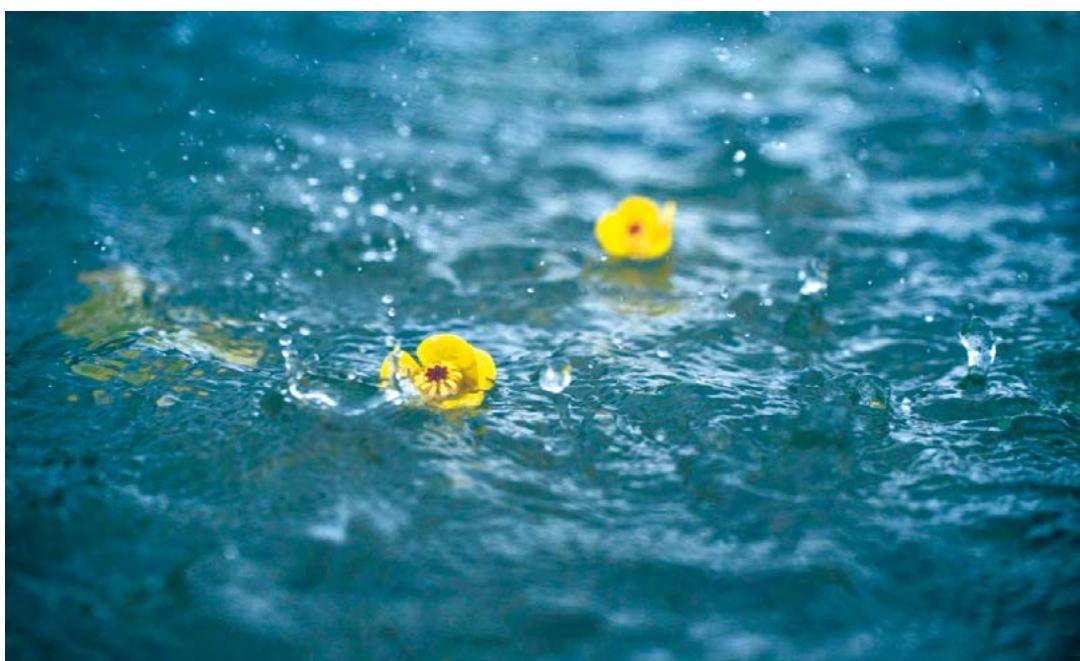


정택근의 야생화 이야기 -남개연

이름부터 낯선 이 꽂은 연꽃과 수련 사이 어디쯤 놓인 ‘작은 연’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쉽게 닿지 않는 자리에서, 꽂은 제게 두 개의 풍경을 건네줍니다. 뜨거운 뛰약볕 아래 세상의 소리를 모두 흡수해 버린 듯한 고요함, 심지어는 멀리서 낚시하는 이들의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마저 사라지게 하는 이질적 느낌이 하나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까지 잠기는 물에 들어가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을 바라보는 제가 보이곤 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한 느낌에 안온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담으려 갈 때의 심정은 마치 수도원을 찾는 심정인 듯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풍경입니다.

남개연은 수면에 떠 있는 심장형 잎과, 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꽂대 위 작은 황색 꽃으로 구별됩니다. 외견상 꽂처럼 보이는 다섯 장의 노란 구조물은 사실 꽂받침입니다. ‘꽃’은 꽂받침 안쪽의 자그마한 녹·노란색 화관과 붉은 원반 형태의 암술머리stigmatic disc에 숨어 있습니다. 직경 2.5cm 남짓한 이 원반이 남개연의 상징적 표식이고, 왜개연에 비해 암술머리가 선명한 붉은빛을 띠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꽃은 6~9월, 수온이 18°C 안팎일 때 개화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서서히 열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다물어 며칠간 반복적으로 개폐합니다. 수생 곤충과 바람이 꽃가루를 옮기는 동안, 등그런 씨방 속 채종이 진행됩니다. 수정이 끝난 뒤 꽂대는 굽어 열매를 수면 아래로 내리고, 가을이 되면 종자는 점차 기포를 품어 물살에 실려 새로운 터로 이동하는데, ‘떠나는 뿌리’를 통해 세상과 조우하는 것입니다.



남개연의 ‘남南’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개’는 ‘연꽃보다 왜소한 형질’을 드러내는 접두어입니다. 남개의 어원엔 ‘정식보다는 변형’이라는 식물학적 시선이 담겨 있으나, 동시에 경계 밖에서 피어난 생명의 겸허와 외로움도 배어있는 듯 보입니다. 수심 30~80cm, 완만한 물살, 이탄泥炭질 토탄층 — 남개연이 요구하는 조건은 놀라울 만큼 섬세합니다. 수면이 출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해야 하며, 과도한 인광溢光도, 완전한 그늘도 피합니다. 그 비껴선 자리에서 자기만의 원칙들을 하나 둘 세우며 고유함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개연의 대표적 꽃말은 ‘깨끗한 마음’ ‘청순한 기다림’입니다. 잎과 꽂이 수면 위에 고요히 떠 있는 형상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호수는 시간을 천천히 되돌리는 거울입니다. 수면 아래 잠든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영양을 끌어올리고, 수면 위 잎은 태양을 반사해 하늘을 영



접합니다. 남개연은 그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질문합니다. ‘뿌리는 머물고 잎은 떠 있다면, 나의 시간은 어디에 닿을 내리고 있는가?’

남개연

큰비 지난 물살 위에
남개연 하나
잎도 피우지 못한 채



말없이 떠 있었다

바람이 와도
비가 내려도
그저 한 번
자신의 계절을 건넜을 뿐

나는 오늘
그 꽃을
조용히 바라본다

마치 한 사람의 생을
지나간 자국처럼
고요히 피었다가
고요히 젓는
그 투명한 단념

농부, 생태사진작가 정택근

아산시니어클럽관장, 생태사진작가
지적장애시설인〈예닮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부회장〉 등 역임
<https://www.facebook.com/taekgeun.jung/>



윤성택의
불씨 하나 품고

가을비가 내리면 멍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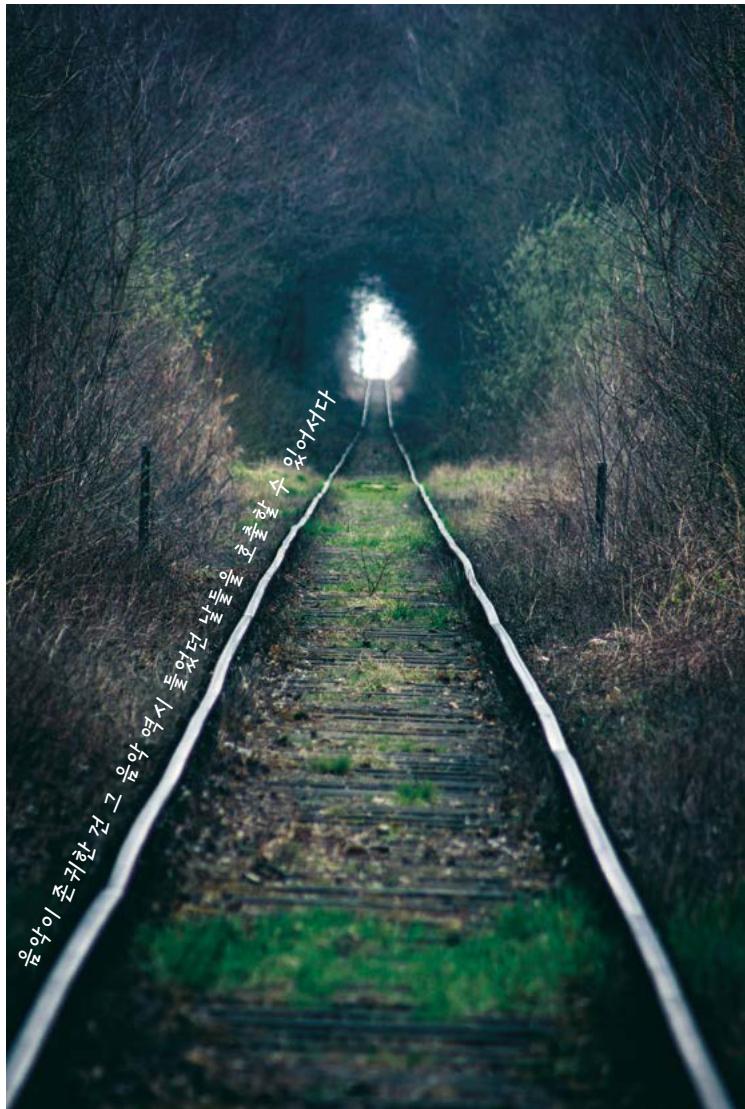




가을에는 명하니 비를 바라보아야, 빗속 과거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철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치고받고 싸우고 비를 맞았고 피를 뺐었다. 때로 분노는 나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치기였다. 하릴없이 쳐댔던 운동장 구석 모래주머니와 돌려차기 연습용으로 세워뒀던 왕따들, 나는 지금도 눈 뜯 채 후회 앞에 나가떨어진다. 그땐 나조차 믿을 수 없어서 그 가을 덜 외로운 교회에 가서 혼자가 되었다. 비가 새는 지하 개척교회, 누구나 한 번쯤 믿음을 자신의 상처에 대보고 싶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지상으로 높게 세우려 부흥회는 성황을 이뤘고, 얼마 후 붉은 벽돌이 흙 없이 쌓여 성호를 그었다. 나는 그 목적에 유치해졌다. 그렇게 질풍노도는 자전거 폐달을 마구 밟으며 변듯한 교회를 지났다. 비릿한 비에 섞인 흙 내

음, 젖은 단풍잎들이 들러붙은 창문, 거기서 나는 꽤나 진지하게 명한 생각을 가설해 놓았다. 언제든 어디서든 접속하게 되면 눈을 열어두겠다고. 그러니 추억은 게이트이면서 순간이동이 가능한 시공간이다. 사차원과 불가사의가 도서관 뒷자리에서 기다리던 시절이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기차가 뒤로 가면서 과거에 이르는 장면이 있다. 가끔 그러한 노선이 내게도 있는 것 같아, 한 세 번쯤 다시 봤다. 같은 영화를 또 볼 수 있다는 건 그 장면이 내게서 실재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우주에 대한 여러 이론이 각기 다른 원리로 해석하려 들듯, 평행하니까 기차가 뒤로 갈 수 있고, 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화가 나 대신 두 시간여를 당겨간다. 그 모든



에 턴테이블처럼 빗줄기가 내려앉아서
소릿골을 긁어간다.

건널목에서 아야, 가을이다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고갤 숙이는데,/ 호흡 안으로 딸려 오는 소리./ 후魯,/ 비강에서 이는 청량함./ 봄과 여름을 지나오면서/ 처음 듣는 이 촉촉한 리듬,/ 왜 이리 경쾌한지./ 콧속에도 가을이 들었구나./ 조금씩 물드는 잎새들과/ 일찍 켜진 간판들,/ 올 깊은 스웨터./ 반가워 울 뻔한 젖은 콧속이 징해온다./ 오늘은 누구도 모를 비밀도/ 머플러를 둘렀겠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는 건/ 어깨를 좁혀 가을에 끼워보는 일./ 버스 안에서 떨어뜨린 책갈피 줍느라/ 후魯,/ 詩를 들이마시는 일./ 내 건조한 날장에/ 뭔가 쓰이는 이 습기. - 메모 <후魯>

이쯤에서 자리를 뜯다. 이래야 내가 다시 나를 써먹을 수 있다. 시를 써먹어 용케 그 언저리에서 밥 먹고 산다는 게, 늦은 저녁 훌로 해장국에 마시는 소주와 같아, 뒷맛이 알싸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적막해서 오른쪽 팔꿈치와 독대할 줄은 몰랐다. 비스듬히, 자세를 기울이며 다리도 꼬면서 벗어놓은 안경 자리에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 자체로 젖어본다. 혼자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운 사람이다. 그리워서 훌로 밤을 다 잔에 채울

인과가 가을비 내리는 웅덩이에 파문으로 번져 있다. 젖은 옷은 젖은 대로 그 상황을 입은 채 버틴다. 비 맞고 다닌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친구는 검지를 머리 가까이에서 빙빙 돌려 보였지만, 한 번쯤 그 궤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면 기차가 잠시 멈췄을까. 이쯤에서 보사노바풍 바이올린 연주 OST를 듣는다. 음악이 존귀한 건 그 음악 역시 들었던 날들을 호출할 수 있어서다. 불려 나온 감성이 또 비에 젖는다. 돌아갈래, 정말 돌아갈 수나 있나. 돌아갔다 다시 되돌아와 무엇을 줄 수 있나. 이제 파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아이러니의 16%가 새로다. 나머지 8할이 낯선 나다. 사실 삼단 접이 우산은 가방에 있고, 그 삼단만큼 심심한 위로가 비로 내려준다는 것. 식당 주인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나는 구석진 자리가 연출하는 분위기에서 막잔을 비운다. 가을비가 와서 술 한 잔이 찾아왔다고 하면, 주당은 가을이 자신에게 맡겨진 거라 여기겠다. 우산을 펴니 거리가 번들거리는 네온 빛으로 길을 터준다. 달큰한 숨이 풀풀 날린다.

그리고 보니 음주 예찬이나 하고 있는지 몰라, 잠시 자세를 바로 하고 방향을 달리해 본다. 그러니까 가을비가 온다는 말. 온다는 건 위치를 옮기는 것이고, 한때 자리리를 차지한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겠다. 내게로 비가

왔으니 누군가에게는 떠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가을비는 내게로 와서 나를 벗어나서, 좀 더 먼 나를 지나치려 가는 중일 것이다. 명하니 비 오는 창밖을 보는 순간, 내 눈이 먼 미래에서 눈뜰 것이니.

윤성택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2001년 〈문학사상〉 등단.
시집 『리트머스』, 『감(感)에 관한 사람들』,
산문집 『그 사람 건너기』, 운문집 『마음을 건네다』.



법과 이야기

법도 체면이 있다

전 형 호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한국인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서코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情, 한恨, 흥興, 눈치문화, 공동체 우선주의, 그리고 체면 등입니다. 그중 오늘은 최근에 읽은 책을 통해 ‘체면’에 대한 저의 단상을 적어 보려 합니다.

‘체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의미하지만, 실상 ‘체면’은 더 깊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체면’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 명예, 존엄성을 유지하고 중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핵심은 ‘외부에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때 얼굴은 바로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 ‘사회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토록 애를 쓰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체면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몸가짐, 신중한 언행, 배려하는 태도 등은 모두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며 이는 남들에게 믿을 만한 이미지를 주고, 타인에게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또한 남의 체면을 존중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큰형이 동생들에게 농담을 던질 때, 동생들이 형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은 형의 권위를 존중하며 가족모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상사가

실수한 정보를 발표할 때, 부하직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 상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사의 체면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이처럼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좋은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명예를 보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도 타인의 체면을 고려하며 무례한 행동을 피하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허례허식에 빠지기 십상이고 더 나아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며 공동체는 경직된 분위기로 빠지기 쉽다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체면 중시’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 개념보다 타도해야 할 고루한 표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자 현직 변호사인 도진기 작가의 단편소설집 『법의 체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인공 변상일은 부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금거북은 장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상일은 장물취득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판에서 변상일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에게 장물인 금거북을 팔았다는 사람의 증언이 확고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직후 변상일은 또 다른 재판에 넘겨집니다. 몇 달 전 강원도 홍천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범행도구에서 발견된 지문이 바로 변상일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리하여 변상일은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강도살인 재판에서 변상일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된 장물취득죄 사건의 범행일시와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진 범행일시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같은 일시에 부산에서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강원도 홍천에서 강도살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작품 속 변상일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그날 장물을 사지 않았다고 줄곧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제가 그날 장물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1심뿐만이 아닙니다. 2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으신 대법관님들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 부산에서 장물을 산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변상일의 강도살인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범행도구에서 변상일의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물취득 사건에서 변상일이 억울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스스로가 그 날 그 시간에 부산에서 장물을 샀다고 선언했고,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위 『법의 체면』 속의 이야기는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권자 중에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체면』의 검사가 강도살인죄 사건의 지문을 근거로 변상일의 당일 알리바이(즉 부산이 아닌 홍천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장물취득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장물취득죄 사건의 유죄를 무죄로 변경한 후, 강도살인죄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의도는 이런 법리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법원이 법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법의 체면’만 중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의 체면’을 가장 중시한다고 느끼는 기관은 법원보다는 오히려 검찰입니다. 사실 법원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법리가 잘못되었다며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제기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1차적으로 인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항소를 제기합니다. 즉 검찰의 유죄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검사는 상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고, 때로 윗선 검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심, 3심까지 몇 년을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체면 중시 태도는 특히 과거사 사건의 ‘구형求刑’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

지만, 민청학련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공판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무죄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하는 ‘백지구형’이었습니다. 즉 검찰 스스로는 과거의 명백한 잘못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법의 체면’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되도록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사건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무죄구형’을 했습니다. 과거 최말자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최말자 씨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위 재심사건의 공판검사는 무죄구형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 사건에서 검





최말자 님의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시위 모습 (대법원 앞, 2023.5.31. <연합뉴스> 제공)

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법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법은 약속을 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판단을 내린다는 법집행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두 가지 ‘법의 체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여 겸손을 갖추는 체면과 법 적용에 있어서 진정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체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또한 어쩌면 ‘변호사로서의 체면치레’를 ‘법의 체면’인 것처럼 둘러대고, 또 한 명의 변상일이나 최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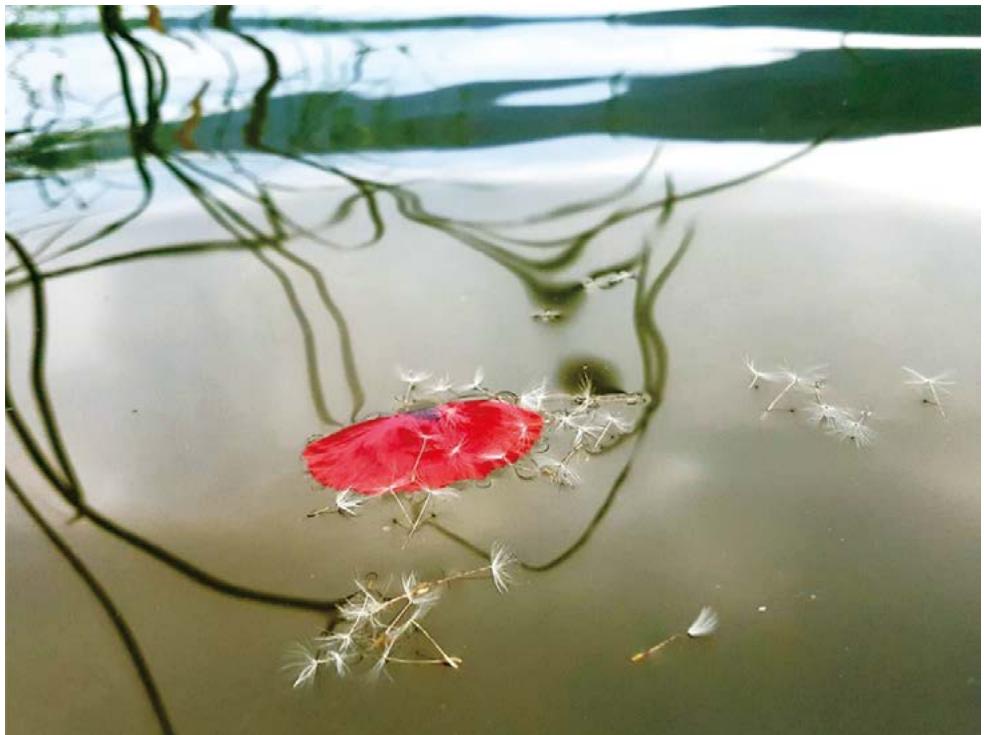
씨를 만들었던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법을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법을 적용받는 사람으로서, ‘법의 체면치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진정한 ‘법의 체면’이 세워지는 사회를 꿈꾸어봅니다.



전형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어서문학과(대학원)
(현)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_02.6953.7060
hhjeon@saerok.co.kr

| 꽃잎배 하나, 그리움 싣고



사는 게 절박할 때
그리움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지

그곳에도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까
붉은 꽃잎배 따라 다시 찾아오네

_조영래「회귀」

(디카시집『구름의 연비』 중에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오지 않았다. 불안에 상처 입은 영혼은 여울목에서 자주 휩쓸렸고, 흐름에 떠나니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언제 시련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그마저도 지나간 그리움이 되어 있다. 절대적인 고립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박한 시간 속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안다. 오직 그 상처를 부여안고 우는 일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고통은 무겁고, 위로는 가벼워서 그 시간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르면, 첫 계단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위의 계단은 오를 수 없다. 누구나 자아실현을 꿈꾸지만 먼저, 먹고 안전하고 사랑 받고 존중받는 단계를 지나야 가능한 일이다. 사는 게 절박할 때, 그리움은 사치였다. 생리적 욕구조차 채우지 못한 이에게 자아실현은 너무 먼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슬며시 빙 마음이 된다.



햇빛이 없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골목길, 문득

무지개를 보는
마법은 일어난다

— 박수경 「살면서 한 번은」

〈양산디카시인협회〉 사화집, 『視詩한 우리』 중에서

정말 마법이 일어난 걸까. 아하, 그곳에도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이다. 절망의 홍수 속에서도 씨앗은 마르지 않았고, 틈을 타 싹을 틔우고 있었다. 햇볕도 비도 끓지 않는 골목길. 어둡고 마른 먼지만 흘날릴 것 같은 길에도 어느 날 문득 무지개가 뜬다. 무지개는 기다림 없

이 오고 준비 없는 마음에도 스며든다. 어떤 삶이든 마법처럼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게 어디 한 번뿐이랴. 하루에도 해가 나오고 여우비가 내리고, 때론 소낙비가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그치고 말끔하게 말려 주지 않던가.



시간이 다가와
거두어가면

맺혔던 것들
꿈결 같겠지

—송재옥 「지나고 나면」



너무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매미 허물은

지난 시간은, 돌이켜보면 다 한때였다. 시간은 다가
오며 기억을 거두어간다. 그러면서 꿈결처럼 지나간다.
시간은 매듭을 짓기도 하고,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주기
도 한다. 찢어져서 아팠던 일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
던가 싶도록 치유되기도 한다. 상처가 무뎌지면 오히려
꽃처럼 피어난다. 사는 일이란 꿈결 같다. 꽃이 피었다
지듯 물방울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아련해진
다. 물론 풀리지 않는 매듭도 있다. 하지만 그 매듭조차
시간의 손길에 쓸리고 쓸리다 보면 다소 매끈해진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그리움이 어느 날
회귀해, 문득 마음을 밝혀주는 무지개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꿈을 꾸며 우리는 삶을 이어간다. 삶은 결국 깨
어 있는 꿈을 오래도록 꾸는 일인지도 모른다.



송재옥

제8회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수상. 2025 〈대구신
문 신춘디카시〉 공모대전 최우수상. 디카시집 『소리의 그림자』
『저문날의 삽화』

靑, 시로 듣다

박 일환

숨어 있고 싶은 마음

땅속 어둠에 갇힌 감자와 고구마는
햇빛 환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다들 몸이 균질근질할까?

굵고 튼실하게 자란 것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 제 몸매를 빼기고 싶겠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들은
차라리 땅속에서 겨울잠이나 자고 싶어 할지도 몰라
혹시라도 누가 캐러 올까 봐
마음 졸이고 있을지도 몰라.

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성적표도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을 게 분명해.

럭비공 사랑하기

축구보다 럭비를 사랑하기로 했어.
럭비공은 어디로튈지 모른다는데

그럴수록 내 품에 꼭 안고 달리고 싶어.
찬다는 말보다 안는다는 말이 좋아.

몰고 가기보다 안고 가기
뻥 차기보다 꽉 끌어안기
그렇게 한 몸으로 결승선 넘어가기

상대가 막아서면 힘차게 밀고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안고 달리는 게
꼭 럭비공만은 아닐 거야.
저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테니
힘껏 달려!
넘어지더라도 가슴에 품은 건 꽉 끌어안고!



웃지 못한 사연

시골 사는 이모가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왔다.

애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같은 학년에 애 혼자거든.

우리 애도 전교 1등 할 날이 올 거야.
엄마도 웃으며 말했다.
내가 꿈부터 크게 가지라고 했거든.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시골로 이사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웃을 수도 없었다.

시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게 분명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백일장에서 장려상은커녕 입선도 못 해 봤으니 타고난 글솜씨가 점병인 걸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시인이 되고 싶었고, 대학도 국문과를 선택했다. 역시 국문과 안에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 곁에서 주눅이 든 채 지내야 했다. 서른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간신히 시인이라는 모자 하나를 얹어 쓸 때까지 수없이 하느님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왜 남들과 같은 글재주를 주지 않았느냐면서. 내가 시인이 된 건 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내게 재능은 주지 않았지만, 그런 하느님께 보란 듯이 나도 시인이 되어 보이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던 시간들이 있었다.

‘시답잖다’라는 낱말이 있는데,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말놀이 삼아 얘기해 보자면, 나는 ‘시답잖다’라는 낱말을 시다운 시는 드물고 시답잖은 시들이 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한다. 시답잖은 시만 써내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시다운 시가 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해 오늘도 시를 쓴다. 달아나기 쉬운 럭비공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달리는 마음으로.

시인의 에세이

내가 시를 쓰는 이유

시 쓰기가 쉽다면 도전해 보고 싶은 열망이나 거기서 오는 매력을 전달받지 못한다. 쉬운 일은 금세 짚증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해친다. 이렇게 해봐도 잘 안되고 저렇게 해봐도 잘 안되니 꼴을 갖출 때까지 자꾸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감각과 인식의 확장을 통해 자신이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그게 실패하면서도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 힘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인가,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후자의 편을 들어주는 이들이 꽤 있지만 타고나는 부분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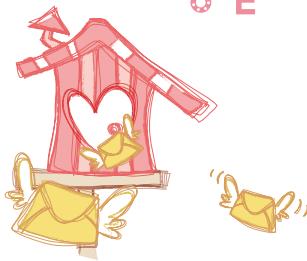
박일환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에서 시 추천 받음. 시집 『등 뒤의 시간』, 『귀를 접다』, 동시집 『토끼라서 고마워』, 청소년시집 『만렙을 찍을 때까지』, 『우리들의 고민상담소』 등.



♡
♡
♡

사랑을 전하는 편지



더 불어 산 25년

김여옥

“폭풍이 지난 뜰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
도 맑은 물은 솟아난다.”

이것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이자 명언이다. 내 삶에서 그 맑은 샘은 ‘봉사’라는 선물로 찾아왔다.

마흔 살이 막 되었을 때였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은 빠듯해졌고, 두 아이를 키우는 일상은 정신적으로도 벼거웠다. 그러던 중, 친한 언니의 권유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였

다.

처음에는 언감생심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봉사활동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여겼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첫 몇 번은 그저 회원들과 함께 가식적으로 동참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에서의 봉사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인생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장애인시설 아침 식사 보조 봉사에서, 그들과 더 옥 가까워졌다. 말도 서툴고 행동도 불편했지만, 눈빛으로 반가움과 고마움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이후 직장생활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불우이웃,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봉사회 회장을 맡아 회원들과의 교류와 우정을 쌓았고, 이는 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세월은 흘러, 이제 환갑을 훌쩍 넘겼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5년, 누적 봉사 시간은 3,000시간, 활동 횟수는 1,000회에 이른다. 돌아보면, 내 봉사는 단순히 베푸는 삶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받고, 치유되고, 배운 시간이었다. 그것은 나의 ‘베풀’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얻은 인생의 선물이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노랫말처럼, 나 역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소박하게 익어감을 느낀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리라.

그렇게, 더불어 살아온 25년의 모습 그대로.

김여옥

엄마손봉사회 회장



그 순간

김 철 수



몬로의 치맛자락이

살짝 들릴 때

클레오파트라의 뱀이

귓속말을 했다

너도 여자가 될래.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수채화적 풍경 사진 개인전. 〈문학과의식〉 수필 신인상 수상. 광주문인 협회 회원

몰락

맹태영



聖이란 이름의 희생

性이란 이름의 차별

城이란 이름의 권위

이제는 흙이 된 이름들

2016년 〈신문예〉 시 부문 등단. 디카시창작지도사 전과정 수료. 경남정보대 문예창작과 재학 중.
아태문학상, 하이데거문학상 수상. 시집 『소고기국밥』 외 다수,

하늘 일기

염진희



글줄과 글줄 사이

유선 공책 한 권

스쳐가는 생의 노래

보이지 않는 글을

읽어 본다

카톡 유감

이동제



감
감
무소식일 때가

차라리 좋았다

찰나

이 시 향



찢긴 날개로도 끝내

먼지 털듯 일어나

빛을 향해

우리의 일생도 날아간다

집으로

전 수빈



그레텔은
조약돌이 아닌
동백을 흘리고 갔다
집에 잘 돌아갔으려나

눈물의 지형도

고 완수

바람을 궁글리*는 낙엽을 따라가면 네 눈물의 마지막
에 가닿을 수 있을까
잎맥이 내민 지도는 온통 미로뿐이라
메마른 울음 뽑아 방위선을 그리고 나이테 지문 찍어
등고선을 쌓으면
내 꿈의 바깥쪽일까 네 꿈의 안쪽일까

꽃잎은 흘러도 오래도록 제자린데 파문 한 점에도 눈
물샘은 얼어붙어
나 홀로 견뎌야 할까 폭설 같은 이름을
가지가 제 그림자 칼날처럼 벌 때마다 하늘은 가래인
양 구름을 내뱉어서
축척을 거듭해도 넌 축적되지 않는다

*궁글리다: 굴리다의 방언

그 집 · 2

김 동 곤

내가 떠난 그날부터
그 집은 누군가의 것이 되었겠지만
밤의 시간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 집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빛은 여전히 따스했다

내가 어떤 슬픔으로 잠겨
그 슬픔이 헷살처럼 흘러내릴 때
나는 그 집에서 들리던 낮은 웃음과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살던 그 집에는
내가 무심히 간직한 바람 소리와
눈 감으면 손끝에 닿던 잔잔한 별빛
그곳을 감싸던 나무들은
바람이 오면 몸을 기울여 속삭였고
나는 그 속삭임을 따라 계절의 이름을 지었다

내가 살던 그 집 마당을 흐르던 빗물은
언제나 냇물이 되었다가
다시 어디론가 흘러가던 시절
나는 물 위에 작은 배를 띄우며
슬픔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 낡은 기억들이 내 발목을 붙잡았지만
떠날 때마다 눈물로 그 방의 창문을 닦았다
벽에 스민 시간들
나무 울타리 틈새로 불어오던 찬바람까지
나는 거기에 나를 묻고 떠났다

필사의 오류

김 시 운

언젠가

내가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나와 그 집은 무너져 간다, 조금씩
기억은 파편처럼 빛나면서 희미해지고
나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별처럼 떠오르는 바람 소리에 기대
나는 또다시 흐르고 있을 것이다

원본대로 어제를 필사한다
눈부신 태양은 동에서 떠오르고
아침노을은 바다를 물들이고 있다
하늘을 흐르는 흰 구름
파도는 모래알을 씻고 갈매기가 나는
어제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다음 구절은

원본에 어떻게 적혀 있나 아니
흐릿하게 지워진 자국
누가 지웠을까
침침한 눈을 비비며 봐도 알아보기 힘들다
그걸 빼놓고 쓸 수는 없어
지운 흔적을 어떻게 되찾나
내 마음대로 아녀
안 쓰면 몰라도 원본에 충실해야지

오랜 시간 어제를 한참 베끼다

잘못 쓴 글씨를
지우개로 빽빽 문지르며
고무 뚉이 하늘에 흡어 쌓인다
입술로 흑 불어 날리며
지우고 문지르다 오늘이 뻥 뚫리면 어떡해

필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해는 서산을 넘어가며
저녁노을을 토해 놓는다
하늘종이에다 써 놓은 필사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2021년 〈광명전국신인문학상〉 시 부문 대상.
2022년 계간 〈사이펀〉 시 부문 등단. 공역서 『국어 시간에 옛글 읽기』, 『국어
시간에 옛 시 읽기』 등

흰털고양이와 시 읽기

김 제 이

오류가 났으면 어쩌지
별이 눈을 부릅뜬 자리에서
필사를 내일로 넘기고 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침대에 누워있던 흰털고양이,
시집으로 가슴을 가린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스탠드
불빛에 눈 부셔서일까, 한결 눈은 가늘고 입술은 붉다

표지가 붉은 시집은 속도 붉을 거야, 저런 불온한 시
집은 당장 빼앗아 금서로 지정해야 해, 한발 다가가자
흰털고양이 혀를 날름 내보이고 이불속으로 숨는다

어디 없을까, 장미의 귀에 대고 입김 불어넣는 저녁
바람 같은 시, 막 구워낸 고등어 같은 시, 그런 시 읽어
주면 저 고양이 두 귀 쫑긋 내게 마구 달려들 텐데

시는 말이 필요 없다, 말보다 뜨거워야 한다, 불을
끄고 살며시 침대 속으로 기어든다, 어 없다, 흰털고양
이가 없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달빛 울음소리

옹
야~옹

낚시꾼의 철야 고백

박 장 희

햇살 흘러내린다

바래진 페이지를 펼치면 장미꽃잎이 발레리나로 물
위를 스친다
목젖까지 차오르는 갈피 사이 온도계는 고요를 가리
킨다

저 팻말이 외치는
수평선이 호숫가를 삼킬 때,
그날의 질문은 발레를 멈출까,

한 페이지의 호수, 물 밑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 글
자들이 수면 아래서 흐느적거린다

물결과 속삭이는 흥정
수심과 수면을 넘나들며 이 얕은 호수에도 물고기의
언어가 녹아 있었을까,

암호를 든 낚시꾼 호반에서 철야 고백을 내던지자
다가설수록 선명해지는 접근 금지 팻말, 유영하는 은
유들, 이미지의 산란

모든 것을 들여다보았지만 시니피앙의 소란만 물속
에 잠기고

숙제를 또 미뤄야 하나?

바닥에 닿은 질문이 물 위에 떠오르면 그 질문은 낚
싯바늘에 걸린 고기 빛깔로 반짝인다

찌가 웁찔, 가라앉고
나는 갈피를 헤아린다

울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전공, 문학 석사. 2017 『시와시학』 신춘문예
당선. 『울산문학상』, 『장풀샤르트르문학상』 대상, 『울산詩文學賞』, 『함월문학
상』, 『불교문학상』 등 수상. 시집 『폭포에는 신화가 있네』, 『황금주전자』 외. 산
문집 『디시페이트와 서문 얇이』.

너 없는 날들의 비문

변형열

그리움은 어제의 빗물처럼 묽고, 오늘의 언어처럼 낯설다.
 나는 너를 기다리는 법을 잊기 위해 너를 계속 기다렸다.
 반쯤 닫힌 창문이 나를 말려들게 하고,
 너의 부재는 책장 속에서 자꾸만 페이지를 넘긴다.
 손끝이 젖었다. 바람이 다녀간다.

너 없는 날들은 무늬 없는 접시 같다.
 무엇을 담아도 끝내 허기지는 식탁 위에서
 나는 너의 이름을 저녁처럼 씹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건
 네가 떠난 뒤, 말해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없는 발자국,
 전화기에는 남지 않은 숨결,
 너를 부르지 않기 위해 나는 하루 종일 너를 부른다.
 너는 대답하지 않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 너의 기척에 익숙해진다.

한없이 닳을 수 없다는 것이
 너를 가장 가까이에서 끌어안는 방식일지도 몰라.
 나는 너의 부재를 키우며
 내 안의 방을 또 하나 늘렸다.

다시, 물처럼.
 다시, 침묵처럼.
 나는 너를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2010년 〈창조문학신문〉 신춘문예 드라마 부문, 2021년 〈월간한국소설〉 소설 부문, 2024년 〈월간문학〉 희곡 부문 당선

살구

성정희

잘 익은 살구는 아집이 없다
 양손으로 나누면 부드럽고 깔끔하게
 어떻게 지켜온 내 자리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준다

말랑함으로 곁과 속 나눌 때
 살 같은 흔적 붙여 놓고 싶기도 할 텐데
 앉은 자리에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은
 부끄럼 타는 여자아이 볼 같은 열매

꼿꼿한 칠월
 살구를 먹는 자리에는
 누구라도 밑자리 씨 고집 제거하려고
 날카로운 기구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다

2019년 〈한국문인〉 시 부문 등단. 현대시문학 제5회 〈삼행시문학상〉
 금상. 제12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시 부문 특선. 한국문인협회,
 한국가톨릭문인협회, 시문회 회원. 시집 『잠웃 같은 그 말』

감나무 그늘 아래

심 춘 자

오수에 빠진 늙은 개는 혀바닥을 늘어뜨리고
자잘한 풀꽃들의 갈증

송노인 삼베적삼 들썩이며 부채질하고 마실 나온 박
노인 돌방석에 앉는다

어제 김씨 손자가 갔다는군

그 어렵게……

툭 하고 땅감이 떨어진다

저것도 일기 日氣가 고른 날을 만났으면 홍시가 되었
을 꺼는데

유난히 꽃이 좋은 해가 있지. 기다리던 것이면 더 그
렇고

당도하지 않은 계절을 서둘러 어림하고 미소가 되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지

홍시라고 먼저 떨어지고 땅감이라고 늦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 세상. 어떤 것은 꼭지에 꽃을 매단 채 떨어지
기도 하니까

씨 없는 말들이 마른 입술에 맴돌고

눈가를 적시는 축축함이 마을 뒷산 서성이는 노을을
붙잡는다

2018년 〈문학사랑〉 등단. 한국작가회의 회원. 시집 『낭희라는 말 속에 푸른
슬픔이 들어 있다』

시와 나

우 효 순

시인은 잉크를 먹는 별이다
밤마다 펜 끝에 떨어지는 언어를 삼킨다
그 문장들은 나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나를 적기도 한다

그는 내 안을 떠다닌다
침묵으로 짠 신발을 신고
고양이보다 조용히
무의식 골목을 가로지른다

어느 날 그는 원자처럼 다가왔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흙 속에서
가능성 하나 발아시켜
희망 꽃잎으로 나를 피워낸다

시는 글의 그늘 아래 깃든 빛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이다
우주의 떨림도 감지하는 안테나
언어 걸모습을 벗긴 알몸이다

2025년 〈시인정신〉, 2006년 〈수필춘추〉 등단.

다툰 날 (동시)

장 두 현

판자촌의 사람꽃

정 계 원

다시는

같이 안 놀거야

봐도 못 본 채 할 거야

넌 투명 어린이야

흥

철수야

갑자기 갑자기

친구 이름을 불렀네

맨날 부르던 이름

어디 갔겠나요

응

그들은 산비탈에서 두 발로 벼티고 산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비루한 빈집의 기둥도 벼티고
서 있다 둑근 공기그릇을 땅에 내려놓으면 한없이 밑으
로 굴러가는 비탈진 마당, 아이들의 소꿉장난마저 어려
운 산비탈 동네,

처마 끝이 서로 맞닿아 있는 낮은 집, 때론 술을 마신
아버지들이 빈 비닐봉지처럼 굴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가난이 웃음꽃으로 피어 아이들의 장딴지는 모
루처럼 단단하다

주름이 없는 영혼을 가진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서 어
둠도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하는 듯하다 밥솔이 비어 있
을지라도 꿈은 밤하늘의 황소 별자리처럼 견고하게 반
짝인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능소화 어사모자를 씌워주려고
연탄을 머리에 이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엄마의 이마에
도 소금꽃이 피고 그 꽃 속으로 아이들의 내일이 술빵처
럼 부풀어 오른다

그곳에서 그들이 두 발로 벼티고 사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2007년 〈시와 세계〉 등단. 제27회 〈영광문학상〉, 제2회 〈김동명문학 작가상〉
수상. 시집 『접시 위에 여자』 외.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2021년 〈강원일보〉 동시 부문 당선

아침 풍경

정 이 흔

이른 아침 바람 뚫고
파지破紙 모으는 노인의
손수레가 길을 서둔다

머리와 뺨을 주욱 빼고
꼼지락거리며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손잡이를 허리에 깊이 묻은 채
상체와 얼굴을 주욱 내밀고
힘겨운 걸음을 내딛는다

어느 노숙자의 집이었을지도 모르는
손수레 위 박스 파지 더미가
이제 노인의 집이 되었다

노인이 달팽이처럼
집을 이고 걷는다

문학매거진 SIMA

2025년 겨울호

신작시 응모안내

시를 사랑하는 누구든지

〈문학매거진 SIMA〉에

신작시를 응모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호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접수

선정 공고 11월 9일(예정)

결과는 홈페이지(dohun.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할 때 꼭 주소를 써 주세요.

■ 원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원고 응모 안내를 보고
꼭 공고한 내용대로 접수해 주세요)

1편 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hello@dohun.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ohun.kr)를
참고해 주세요. 〈파란하늘 -시마〉

저녁의 하늘은 말을 아낀다

장 하라

중앙탑중학교 1학년

햇빛이 천천히 접하는
오후 다섯 시
나는 하늘을 본다
누가 그 위에 마음을 펼쳐 놓았는지
물빛은 푸르고
바람은 말없이 그걸 넘긴다
구름 한 조각에도
어느 계절의 잔상이 걸려 있다

누구는 걷다가
누구는 멈춰서 바라보겠지
나는 그저
이 조용한 파란빛 아래
가만히 숨을 고를 뿐
별이 뜨기 전
하늘은 가장 진실하다
그 잔깐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쩐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다.

도서관 가는 길

최 지 예

해운대여자중학교 1학년

도서관 가는 길은 분홍 벚꽃 나무와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로 가득하다
어떤 날은 초록빛 나무 아래 매미 울음이 땅볕처럼
쏟아진다
또 어떤 날은 새빨간 단풍나무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굴러다닌다
때로는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하얀 눈과
뽀드득뽀드득 눈을 밟는 발소리로 겨울을 걷는다
도서관 가는 길은 항상 시끄럽다
도서관 가는 길은 늘 계절의 소리로 시끄럽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세상은 숨을 죽인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공간
고요 속에서 생각들이 자라는 곳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벽장 속 가을

정예은

하안북중학교 3학년

벽장은 그저 벽장일 뿐이고
나는 그게 자주 아쉬웠어

계단 아래 벽장에 사는 마법사 아이의 이야기를 아세요?
나의 벽장은 800번대와 900번대 서가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진갈색 문학과 오래된 소문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라인드를 열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낙엽 쌓인 운동장이 뮤비우스의 띠인 것처럼 빙빙 도는 애들
언니가 갔다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기를 쓰고 문제집을 푸는 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자는 애
죽고 싶다는 말로 공책 한 바닥을 채우는 애도 있고요
그사이 나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가을은 책을 연체한 사람들을 독촉하고 싶지 않은 계절입니다
무엇을 끼워두었는지 아는 것이 두려워서

대출 기간은 너무 짧아 책의 줄기는 길잖아
그래요 가을은 너무 짧고 주인공은 뛰는 법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찢어진 낙엽을 손보는 일이죠

가끔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을
읽고 싶었어요 숨을 참고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며 읽는
놀이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는 종소리가 영원히 울리지 않을 것만 같고요

그 놀이에는 슬픈 구석이 있어요

그것도 벽장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벽장은 그저 벽장일 뿐이고
그게 못내 아쉬워 책을 덮고도 눈꺼풀을 내리고 잠이 든 주인공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도서관 창문에 붙여둔 시집의 페이지의 행방은 모르고
그런 것들이 가을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북극성

남 안나

해운대여자중학교 3학년

앞이 보이지 않아
남은 건 북극성, 저 밝은 별

고갤 돌려도 변하는 건 없구나
며빛으로 가득 찬 바다
구름으로 감춰진 하늘

산산한 파도만이 밀려오네

바람이 나를 부수러 오나
남은 건 북극성, 이젠 흐려진 별

나 어쩌면 행성으로 돌아가서

박 한울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따뜻한 시간을 삼키고 있을 즈음
편지를 받겠지

때가 되었다고
미처 몰랐다고

미지근한 행성에
몸을 담그곤 했어

너를 담기에 부족했던 행성은
점차 작아졌을 거야
그러다 네가 행성을
집어삼켰을 때 즈음

차갑게 식은 우주의 한 자락을
마무리 짓듯이 어루만졌겠지

넌 어쩌면 행성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난 어쩌면 널 보내야 할 수도 있어
저 광대한 우주를 건너
좁고 좁은 우리의 행성으로
마치 한 걸레의 붉은 구두처럼
쉬지 않고 달리겠지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시간의 걸레에서부터

도망치자

걸레더미 위에서

유승우

중앙고등학교 2학년

숨어버리자

차가운 온도의 행성을 유지하고는
그 속을 파고들어가
누구도 찾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

우린 초침이 될 거야
시간이 되는 거야

독서실 화장실, 걸레들 숨을 쉰다.

젖은 기억을 끌어안고
구겨진 하루들을 포개며
자기들끼리 곰팡이의 무게를 나눈다.

그 위

말이 통조림처럼 썩어가는 공간에서
한 줄기 버섯이 피었다.
살갗은 우유처럼 부드럽고
내장은 물때처럼 숨겨져 있다.
이름조차 붙지 않은 곡선이
기어이 생의 척추를 세운다.

옆 방, 아이들이 있다.

책상 위 해가 닿지 않는 뇌의 음지에서
지문을 씹고 숫자를 토하고
스스로의 희망을 교정지처럼 접어둔다.
지우개 가루가 땀구멍을 막고
펜촉이 심장을 찌르는 밤
그들은 말없이 자란다.

버섯은 자신을 말한 적 없고
아이들 또한 자신을 증명한 적 없다.
그러나 둘 다
누군가의 혐오 위에 피어난다는 점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 정당하다.

버섯은 걸레를 뿐리 삼고

늦가을 해바라기 지는 언덕에서

이 슬 미]

장원 성민여자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절망을 교과서 삼아
한 줄의 생명문을
절벽 같은 페이지 위에 새긴다.

늦여름이 흘러간다
햇살은 사그라들었고
바람은 조금 더 가벼운 얼굴을 했다

거리의 나무들은 더 이상 새로움을 바라지 않아
잎들은 오래 머무는 법보다
멀리 떠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지

나는 저무는 것의 온도를 배우는 중
돌아보는 일과 기다리는 일 사이
흘러가는 시간의 결을 닮아가고파
손끝을 스치는 옅은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지나간 계절의 냄새

지금은 무언가 피어나는 순간보다
조용히 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순간이야
한 겹의 나이를 더하는 일은
소리 없이 잎처럼 단단해지는 일

가을이 온다
나는 아직 떠나지 않는 여름의 기척을 등졌어
곧 깊어질 이 계절을 천천히 머금어 보는 중이야

가벼운 숨결로
또 한 번의 시간을 건너기

이제,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을 시작합니다.

글 쓰는 사람과
글 읽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꿈꾸는
파란하늘입니다.

출연금 기부 및 기업, 개인 후원 상담
문학상 및 공모전 개설, 문의해 주세요.
02) 595-4621 / flyhun9@naver.com



유튜브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검색어 : "파란하늘 문화재단"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식 안내

문학매거진 <SIMA>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시마청소년작품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문학매거진 <SIMA> 봄, 여름, 가을호에 선정되어 실린 작품 중에서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 시상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중

수상 선정된 분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최우수상 : 기념패, 상장, 꽃다발, 상금(50만 원, 1명)

우수상 : 기념패, 상장, 꽃다발, 상금(20만 원, 2~3명)

장려상 : 상장, 꽃다발, 상금(상품권 2만 원, 7명)

동시상 : 상장, 꽃다발, 상금(10만 원, 5명, 초등학생)

수상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ohun.kr>)에 공지합니다.



상추

박민준

제천 내토초등학교 1학년

상추가

예쁜 상추

꼭 나무처럼 생겼어요

여우비

고채원

통영 제석초등학교 2학년

하늘에서

여우가 우는 것

여름 한낮

맑음 속에서 있다가

잠깐 왔다 가는 것

여우는 재주를 잘 부리지

칭찬받은 가오리연

권지아

제천 내토초등학교 1학년

오늘 아침 학교에서

가오리연을 그렸다

너무 뚱뚱하게 그린 것 같아서

다희와 다혜에게

잘 그렸어?

물어보았다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갑자기 예쁘게 보였다

자전거를 타면서

공을 번갈아 가면서

피에로처럼

서커스를 하면서

햇빛 반짝이는 곳에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저쪽으로 금방 달아나는 것



지렁이 수영장

김 나은

서울 영원초등학교 3학년

꿈틀꿈틀 작은 길을 만들어요
그 길은 수영장 같아
꿈틀꿈틀

지렁이 수영장은 배형이 아닌
꿈틀 꿈틀형이에요

지렁이도 왔다갔다
즐거운 꿈틀형 수영을 해요
통통하게 건강해졌어요

깨끗해진 달팽이 아가씨가 옆에서
구경해요

아빠

소유나

서울 영원초등학교 3학년

회사에서 일하고 늦게 돌아오시는
아빠의 눈은
초승달처럼 노래요

나는 잠 안 자고 기다려서
우리 아빠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졸려서 꿈에서만 안아줘요

거칠어진 아빠 얼굴 보면 눈물이 펑 돌아요
아빠 얼굴에 내 하얀 얼굴을 비벼서
피곤함을 없애줘요
아빠도 나도 눈물이 펑돌아요



수학 공부

김 지 민

부산 송수초등학교 4학년

똑똑

이 서 윤

춘천 가산초등학교 6학년

사각사각

연필로 숫자 적는 소리

똑똑

계십니까

쓱쓱싹싹

지우개로 숫자 지우는 소리

동글동글 집에

검은 줄무늬

사삭

지우개 가루 버리는 소리

분명 이 집인데

똑똑

집주인 분

철퍼덕

공부가 지겨워 엎드리는 소리

불긋불긋

시원하게 달콤하게

잘 익으셨나요?



멜론

홍 솔

춘천 가산초등학교 6학년

동글동글 녹색공이
노란 그물에 잡혀 버렸다
발버둥도 못 치고
옆 코너 꼬불꼬불 가발 쓴
초록 공만 부럽게 빨라볼 뿐이다.



아이들이 동시를
즐겨 쓸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1년에 4번

봄, 가을, 가을, 겨울

문학매거진 <시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http://dohun.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에세이

청개구리 쇼

박학숙

어린 시절, 네다섯 살 때의 기억 하나.

살아있는 청개구리를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언니들 말에 의심 없이 잘도 받아먹었다. 정말 먹을 줄 몰랐던 언니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 막내가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걱정스럽기도 했는지 하루 세 마리로 한정하여 먹였다.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아이들 한가득, 얼추 모였다 싶었는지 셋째 언니는 마당이 내려다보이는 뒷마루에 나를 세워두고 물이 든 바가지와 청개구리를 들어보이며 쇼의 시작을 알렸다.

“다들 잘 봐, 한번뿐이야.”

그러고는 청개구리가 살아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확인시킨 뒤 나에게 시작하라는 눈빛을 보낸다. 천진한 나는 자연스레 청개구리 뒷다리를 잡고 바가지 물에 휘휘 헹궈 산채로 꿀꺽 삼켜 보였다. 아이들의 시선이 청개구리로 향했다가, 바가지로 향했다가, 내 입으로 옮겨갔다. 모두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나에게





향하는 시선들과 표정을 즐겼던 것 아닐까.

쇼를 벌이면서 먹는 청개구리 수는 점점 늘어났고, 저녁이면 자랑처럼 그날 먹은 청개구리 수를 엄마에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언니들은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나에겐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냈다.

유년기를 지나면서 고분고분하게 자라지 않는 나를 두고, 엄마는 “네가 어렸을 때 청개구리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했다. 어른이 되고서 어느 날 문득, 청개구리 쇼의 내막이 궁금했다. “나 어릴 때 언니들은 살아있는 청개구리를 왜 자꾸 먹인 거야?” 둘째 언니가 피시시 웃으며 말했다. “뒷집 금숙이가 허약했잖아. 걔네 할아버지가 금숙이한테 살아있는 걸 먹이더라고. 내가 눈으로 봤어. 나는 먹을 용기가 없고 너한테 먹여봤는데 네가 진짜로 먹을 줄 몰랐지. 그래도 약이 된다잖아. 개구리 먹은 것이 지금까지 큰 탈 없으니 약이라도 되었겠지.”

식탐 많은 둘째 언니가 차마 본인이 먹어볼 용기가 없어서 막내인 나에게 먹였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나는 노래를 잘 부르기는커녕 말 안 듣는 청개구리로 자랐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딸도 낳았다. 막내딸 ‘유하’가 삐딱하게 나올 때면, 혹시 청개구리의 약발이 딸에게까지 뻔친 게 아닌가… 어릴 적 내가 생각나 자꾸 옅은 미소가 지어진다.

詩 담 시 담

이창건

| 나의 동시 이야기

달과 아빠

이건

달개비꽃

저건

달맞이꽃

달

달

달

달

꽃 속에 달이 숨었다

보름달일까

반달일까

초승달일까

해바라기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누구를

오랫동안 바라본 적 있습니다

그리워

그리워서

누구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나는

내가 혼자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오물오물 도토리를 맛있게 먹는 다람쥐도
붉게 물들어 가는 나무들도

다 나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가을에 나는
내가 슬프게 울지 않고는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빈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누나 같은 첫눈이 되고 싶었다

이 가을에 나는
나의 속울음을 들어야만 내가 되는 걸 알았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코스모스야

너의 아침이
햇살이어야 하는데

너의 하늘이
바다여야 하는데

아침부터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초록색의 대추가 울긋불긋 붉어지면 가을이다. 알
밤이 밤송이에서 얼굴을 보이면 가을이다. 국화꽃이
먼 길을 돌아와 피면 가을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
움이 피면 가을이다. 낯가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생
각에 잠기면 가을이다. 가을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딱
좋은 철이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고 말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라는 것
이다. 그런데 갈대 하나를 꺾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거센 바람 한 줄기와 가느다란 손가락만
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힘없는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꺾일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주가 자신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인간은 생각의 힘
으로 삶의 도덕률을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이 세상
에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은 가
능성이다. 그 가능성으로 과학자들은 위대한 발명을 이
끌고 예술가들은 마음을 울리는 명작을 임태한다. 생각
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누구나 다 창조적으로 생각하
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연출되지 않은 작품이다. 좋은
연출자를 만난 생각은 감동을 주고 재미를 준다. 잘 연
출된 생각은 환호받지만 그렇지 못한 생각은 야유와 비
난을 받는다. 시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
다면 시인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자신만의 생
각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에 아류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는
시인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바탕이다. 시인에게 창조성
은 생명이다.



이창건

1951년 강원 철원에서 태어나 1981년 『한국아동문학』에 「어
머니」가 추천되어 등단. 동시집 『풀씨를 위해』『소년과 연』『소
망』 외 다수.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 『소천아동문학상』, 『윤
석중문학상』 등 수상.

예일초등학교 교장과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역임.

더 큰 꿈을 품은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파란하늘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 시선



공감시선 07 _이교상 / 꽃의 문장으로 당신을 중얼거리다
(2021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08 _김정자 / 시간이 아직도 익지 않은 까닭

공감시선 09 _정대구 / 그대로 멈춰 섯

공감시선 10 _최광모 / 디지털 장의사(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1 _이도훈 / 봄날은 십 분 늦은 무늬를 갖고 있다
(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2 _김영희 / 본문과 주신(강원문화재단 후원 수혜)

공감시선 13 _김영희 / 바람이 노래하는 곳(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수혜)

공감시선 14 _정대구 / 1003이와 1004 사이 날개가 있다

공감시선 15 _이상구 / 윤달 화첩

공감시선 16 _황희영 / 고요를 담다

공감시선 17 _윤석산 / 용담 가는 길

공감시선 19 _권지영 / 사랑이 아니었다 해도

공감시선 20 _이창건 / 서정과 감사로 물든 일상

공감시선 21 _이만형 / 꾸리는 가방은 언제나 차고 넘쳐요

서정의 서정



서정의서정 1 / 권달웅 _꿈꾸는 물
(2020 세종도서 선정, 녹색문학상, 목월문학상 수상)

서정의서정 2 / 윤석산 _절개지

서정의서정 3 / 조창환 _나비와 은하

서정의서정 4 / 한광구 _나무길

서정의서정 5 / 이사철_고니는 삶 일만 예쁘다

서정의서정 6 / 신현정 _빨간 우체통 앞에서

서정의서정 7 / 이세룡_세계의 포탄砲彈이 모두 별이 된다면

서정의서정 8 / 박만진 _울음의 변천사

문학매거진 SIMA

2025년 작품 응모안내

〈파란하늘〉에서는 새로운 작법을 시도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문학을 수용하고자 〈문학매거진 SIMA〉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시, 시조, 동시, 손바닥소설,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담아 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문학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시를 비롯한 다양한 불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상 : 문학를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단, 미등단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기간 :
겨울호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 - 선정 공고 11월 8일(예정)
결과는 홈페이지(dohun.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할 때 꼭 주소를 써 주세요.
- 원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원고모집 공고를 보고 꼭 공고 내용대로 접수해 주세요)
원하는 분야에 각 1편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디카시와 동시만 접수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hello@dohun.kr
- 응모할 수 있는 부문 : 신작시, 청소년시, 동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라피, 손바닥소설, 시마SF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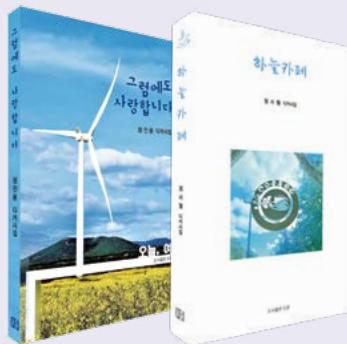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시인선 (1~68)



공감디카시 (1~7)



공감하는공간 (에세이, 소설, 1~25)



〈The 한솔〉(반년간지, 1~11)



꿈꾸미 동화, 동시집 및 어린이해양안전동화 등 총 27권





뇌·신경과학과 양자역학으로 본- 의식과 새문학

Consciousness & New Literary Theory

연 규 호 지음



저자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의 임상경험에 소설가로서 오랜동안 갈무리 해온 창작경험을 결부하여 하나의 융합 연구로서 “뇌과학과 문학”에 관한 결정판을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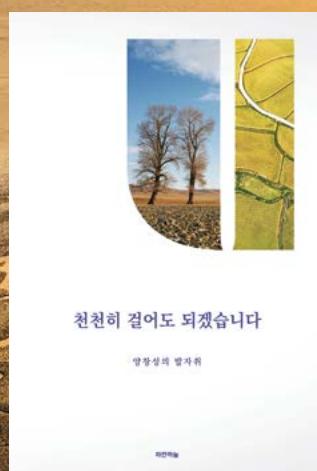
- 문학평론가 김종회

가장 과학적인 이해가 곧 가장 문학적인 이해가 된다.

- 문학평론가 유성호

천천히 걸어도 되겠습니다

양창성의 발자취



양 창 성

향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 지부장 역임

현 효천 죄해봉 장학회 회장, 화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대통령 표장, 화성투데이 정조대상 등 수상

하얀 쌀을 씻어 저녁을 안칩니다



이 창 건 시집



이창건의 시집 『하얀 쌀을 씻어 저녁을 안칩니다』는 서정의 세계로 충만하다. 감각적인 언어로 독자에게 심미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감정이 표현의 정수(精髓)를 이루어 감동으로 다가온다. 생활을 형상화 할 때도 아포리즘으로 개성이 빛난다.

— 박수빈 「서정과 감사가 물든 일상」 중에서

〈문학매거진 SIMA〉 후원 안내

문학매거진 SIMA를 후원하시면 잡지 발간과 청소년 문학사업에 큰 힘이 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엄선된 시인의 작품과 일반 회원의 공모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등 시 관련 작품과 평론가, 화가, 음악가, 연극인, 소설가, 여행가, 시인의 다양한 에세이를 연재하여 읽는 이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정기구독 : 연(年) 5만 원.
- 후 원 : 연(年) 10만 원.
- 시마계좌 : 농협 302-6722-4621-01 (예금주: 이양훈(본명))

후원금을 매월 나누워 자동이체로 후원하셔도 됩니다.

문의 : 02-595-4621 / 010-6722-4621 / flyhun9@naver.comr

즐거운 문학놀이에 함께 하세요~.

“잡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문학이 살고, 글 쓰는 사람들이 살고,
그래야 독자도 삽니다.”

낭랑 18세 박하은 시인의 시집



박하은

제2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최우수상 수상
제20회 현대시문학 청소년 문학상 금상 수상
제24회 의정부 전국문학공모전 장려상 수상
제20회 한국청소년문학상 동상 수상

내 빛들로 별자리를 엮을
당신에게

삶이 글이 되는 순간



그림 : 소리여행

이윤화 장세현 이수현 김현미
이정오 윤종원 이은정 Sunny Kim
8명의 시인, 소설가, 수필가가 역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

책은 온-오프라인 전국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 24호, 2025 가을호

시마초대석 _천양희,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의 고독에게

SIMA SF _전솔이 / 6

시와 사진 _김미희 · 김선하 / 8

조성찬의 여행인문학 / 10

SIMA 가을 초대시

_정미주 / 14

_이사과 / 17

_장희수 / 21

세계의 시 _오민석 / 26

유성호의 문학톡톡 / 31

손바닥소설 _정주연 / 34

_황효준 / 36

칼로 새긴 시 _박해람 / 38

SIMA 특집 _시인의 별을 품은 숲 / 40

정택근의 야생화 / 43

윤성택의 불씨 하나 품고 / 46

법과 이야기 _전형호 / 50

dica詩앗 _송재옥 / 54

靑, 시로 듣다 _박일환 / 58

사랑을 전하는 편지 _김여옥 / 50

SIMA 디카시 / 62

SIMA 가을 신작시 / 68

SIMA 청소년시 / 76

SIMA 동시 / 82

SIMA 디카에세이 _박화숙 / 86

詩담시담 _이창건 / 88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 문학매거진 SIMA

제24호(2025년 가을호) © 이도훈, 2025

1판1쇄 발행_ 2025년 9월 5일

발행인_ 이도훈 | 편집장_ 오혜정 | 편집부장_ 송연숙 | 편집_ 려원 | 편집·디자인_ 이예은

편집위원_ 이준관 박수빈 김이듬 양진기 이해미 김영빈

펴낸곳_ 파란하늘

사무실_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서초동, 양지원빌딩)

전 화_ 02-595-4621 / 010-6722-4621

이메일_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_ www.dohun.kr



파란하늘 출판사 홈페이지
<https://dohun.kr/>

ISSN 2671-7905 | ISBN 979-11-94737-37-7 03810

정가_ 14,000원

이 책의 글에 관한 저작권은 저자와 저자에게 협의, 위임받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자 허락과 출판사의 동의 없이 글이나 사진의 인용 및 발췌를 금합니다.



날다의 뜨락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nald2424>

* 파란하늘의 수익금은 계간지 발간과 청소년을 위한 문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제주4·3역사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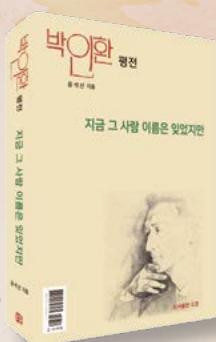
제주4·3평화문학상 당선 작품과 함께하는
Graphic Novel and Poem

4·3 표류기



만화_박건웅

대표작으로 「노근리이야기」「짐승의 시간」「그해 봄」「제시아이야기」가 있다.
2011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2014년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했다.



박인환

평전

다시 박인환의 계절 !!!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윤석산 지음

개정판, 양장본 284페이지 18,000원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 02-595-4621, 010-6722-4621
홈페이지 : <http://www.dohun.kr> / flyhun9@naver.com / Fax : 050-4227-4621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식

문학매거진 <SIMA>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시마청소년작품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문학매거진 <SIMA>

봄, 여름, 가을호에 선정되어 실린 작품 중에서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 시상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중

수상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로 연락 드립니다.

최우수상 : 기념패, 상장, 꽃다발, 상금(50만 원, 1명)

우수상 : 기념패, 상장, 꽃다발, 상금(20만 원, 2~3명)

장려상 : 상장, 꽃다발, 상금(상품권 2만 원, 7명)

동시상 : 상장, 꽃다발, 상금(10만 원, 5명, 초등학생)

수상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ohun.kr>)에 공지합니다.